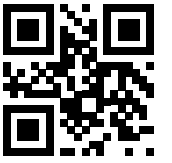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보
www.snuaa.org / news@snuaa.org



제307호 2019년 11월 SNU Alumni Asso.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 발행인: 신응남 편집인: 오치주



미주동문 모교사랑 “더 큰 미래로”

10월14일 개교기념식 참여... 글로벌 리더십(BNW) 특강 · 홈커밍데이 성황

세미나개회사-신응남 회장

제 인사말에 앞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세정 총장님, 신수정 총동창회장님, 정효지 학생처장님, 훌륭한 강의실 사 용 편의를 제공해주신, 장승화 법학대학원 원장님 그리고 수고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주 동창회 신응남 회장 입니다.

지금부터 약 반세기전에, 서울대학교 농과 대학 연습림 이었던, 이 관악의 정상에 서서, 앞으로 새로운 학문의 요람으로 자리잡

을 웅장한 모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오늘 그 꿈이 현실로 바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을 보며, 감격해 하는 여러분의 한 동문 선배가 이곳에 서 있습니다.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는 미래를 위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 역사의 미래를 끌고 갈 주체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구인으로, 호모 싸피엔스로 경제적으로는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자생존의 다윈니즘에서 적자란, 일반적 우성 인자를 갖춘 자가 아닌 차별화된, 초극화를 이룬 자를 말합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보호주의와 제국주의로의 회귀를 꿈꾸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경계없이 경쟁해야 하는 우리들 입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란, 도전과 그에대한 응전의 연속이며, 도전에 현명하게 응전하는 자 만이 그들의 문명을 지킬수 있다 했습니다.

본인은 후배 여러분들이 세계를 리드하는, 높은 도덕을 견지한 글로벌 리더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글로벌 리더로서 갖춰야할 요건들은 무엇 일까요? 여러 요건이 있으나... 그 중에서 거룩한 꿈을 세우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한 창의력과, 그에 대한 열

정, 그리고 확고한 신념일 것 입니다. 뉴욕커에게는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인의 로망인 카네기에는 어떻게 갈 수있나? 라는 질문 입니다. 만하탄 57 가 세븐스 애뷰뉴로 가는 길은 여러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그질문에 대한 정답은, 다름이 아닌 "열정이며, 확신에 찬 지칠줄 모르는 노력, 바로 "Practice, Practice & Practice" 였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온다는 확신을 갖고 목표를 향해 정진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만나리, 미국 각처에서 먼 길을 마다하고 달려온 선배 교수, 학자님들과의 진지한 소통의 자리가 여러분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Be inspired!
감사합니다.

버뮤다크루즈(제29차 평의원회의) 등록마감 - 2020년1월15일

<관련기사 21면>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창의성과 자기혁신, 미래를 선도하는 힘”

미주동창회 초청 리더 3인 서울대 특강... 글로벌 리더십 강연

미주동창회장 신응남 동문께서 '브레인 네트워크'의 부회장이신 나에게 이번 73번째 개교기념일을 맞아 한국에서 세미나를 열 것을 제안하였다. 나는 서울대 총동창회나 다른 마땅한 분이 주관하고 옆에서 도와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학교와 후배들을 향한 신응남회장의 비전과 열정에 감동받아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10월14일 미주동창회 '브레인 네트워크 세미나'를 맡게 된 것을 영광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기꺼이 준비하고 사회를 보게 되었다. 신회장의 기간이 탁월하다 여겨져, 서울대학교의 오세정 총장께서도 이 세미나를 승인하고 학생처장 정효지교수를 지정하여 이 특별 강의를 같이 준비하도록 하였다. 학생처장 정효지 교수의 추천으로 학생처 정지혜 담당관 및 다른 직원들도 강의 준비를 도와주었다. 다행히 세명의 동문이 강의 요청을 받아들여, 열정적으로 이 특별 강의를 같이 준비하였다.

세 동문은 일찍 모교에 도착하여 10월14일 아침 학생처에서 준비한 호암 교수회관에서 의 조식에 참석하였고, 미주동창회 브레인



질의응답 시간에 강사에게 질문하는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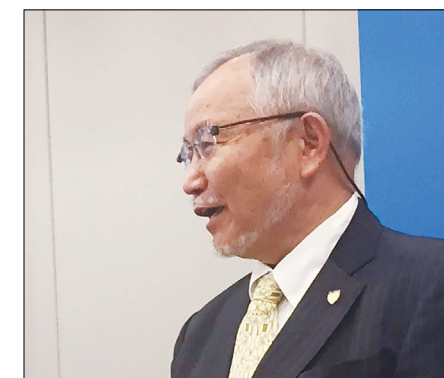
네트워크 특별강의는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기념관에서 오후 2시에 열렸다. 이와 같이 성공적으로 현대 테크놀로지를 도전적으로 이끌어오고 미국과 더 나아가 세계적인 리더로 인정받고 있는 동문들

을 연사로 초청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강의실이 200여명의 적극적인 학생들 및 지원자들로 채워졌다는 것이다. 각 연사들에게는 약 27분정도의 강의 시간과 3분정도의 문답 시간을 추천했다. 이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비전과 열정의 리더인 신응남 미주 동문회장을 소개했다. 신회장은 1974년에 농대를 졸업하였고, 1996년에 듀루 대학 Jacob D. Fuchsberg Law Center 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특강전에 약 3분간 인사말을 하였다. 이후에 이 강의의 장소 및 광고 등을 준비한 학생처장 정효지 교수가 약 3분간 인사말을 하였다.

마침내 사회자로서 첫번째 연사인 이구형 박사를 소개하였다. 이구형 박사는 1971년에 공대에 입학하여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석사까지 서울대에서 마쳤고,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1991년에 인간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박사는 NeuroSky Inc & Neuro Widget Inc.의 창업자 겸 대표로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기업문화, 그리고 기업가정신” 관하여 약 30분간 강의하였다.

이박사의 강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다른 기술들과의 융합이 가속화되는 결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개될 미래사회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과 현재의 직업들은 많은 부분이 필요 없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고,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적인 의식구조를 바탕으로 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한' 창업정신과 창업교육이 필요하게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수재들이 모여 경쟁하고 협력하는 곳이며 창의성과 혁신, 무한경쟁을 통해 세계의 첨단 기술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기회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다. 기회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함께 무한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 실리콘밸리 고유의 에코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창의성과 열정, 정직, 배려심, 리더십 등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 정신이 미래사회에서의 성공에 필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



이강원 교수



이구형 박사



최윤 박사



김광수 교수

며, 우리 젊은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창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미래까지 창조할 수 있는, 세상을 바꾸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다음 연사인 최윤 이화/법학박사를 소개했다. 최윤박사는 약학대에서 1985년과 1987년에 학사 및 석사를 마친 후 도미하여, 1993년에 미국 뉴저지 주립대인 러트거스 대학교에서 유기화학 합성 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약학대 황운 동문이며, 결혼이후 현재 최윤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후 약 15년간 미국 제약회사에서 연구원 및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2007년부터는 뉴욕의 지적재산권 전문법인인 Lucas & Mercanti, LLP에서 변리사 및 기술 고문으로 근무중이며 그동안 뉴욕 포담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도 받았다. 최박사는 “한계의 정의 및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최윤 박사는 여러가지 분야를 겪은 본인의 커리어 이야기로 시작하여 우리가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사람들의 기대에 근거하여 한계를 정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최박사는 본인의 경험이 다음 단

계에 한계가 아닌 바탕이 되는 지식이 되었다고 했다. 특히 변리사로서 최박사는 인생을 특허와 비교하였다. 기대에 부응하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본인들의 인생을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 특별한 특허성이 있는 인생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최 박사는 여러분야가 다 엮여있는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앞날에 다른 분야의 공부를 더 하게 될 수도 있고, 다른 학위를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공부할 준비하도록 당부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다음 연사인 김광수 교수는 1977년에 미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코넬대학교와 테네시대학 등을 거쳐 현재는 하버드 의대의 교수로 재직중이다. 김교수는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신경생물학 및 줄기세포학의 권위자이다. 김교수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개인맞춤형 줄기세포치료의 현황 및 미래”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였다. 김 박사의 주요 연구 분야는 중뇌 도파민 뉴런 시스템의 분자 신경생물학으로 이의 상태 및 질병을 연구하여, 도파민 뉴런의 분비 및 유지 관리의 유전적 네트워크를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그는 잠재적인 약물 표적을 식별하고 High Throughput Screening을 통하여 파킨슨 병 (PD)과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물 개발에 힘쓰고 있다. PD는 도파민 뉴런의 선택적 죽음에 의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신경 퇴행성 장애로서 전세계적으로 거의 천만 환자가 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약물은 증상을 줄일 뿐이며, 질병 과정을 멈추거나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 김 박사는 또한 줄기세포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임상 등급의 인간 유도 만능 줄기(iPS) 세포를 생성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인간 iPS 세포는 환자의 생김 세포에서 생성될 수 있고, 도파민 뉴런과 같은 세포의 여러가지 세포로 분화될 수 있다. 이 iPS 기술은 어떤 윤리적 또는 의학적 문제 없이 개인 맞춤형 세포 치료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김 박사는 PD 환자를 위한 iPS 기술을 사용하여 새로운 신경 보호 약물 개발 및 맞춤형 세포 치료를 개발하기 위한 translational 연구 결과를 공유하였다.

한편 김교수는 본인의 유학 및 도미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공유하면서 학생들과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었다. 이후 세 연자가 다 함께 학생들과 문답하였고, 학생들은 커리어 개발에 관하여, 유학 및 전공에 관하여, 연사들이 어떻게 어려움 때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등을 물었다. 이 패널 문답으로 특강을 마무리하였다. 이번의 특강은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과 관련해 여러가지 방향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의 4차산업혁명의 성공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서울대미주동창회와 브레인네트워크가 주최한 특별강의를 마쳤다. 강의를 마친 후 많은 학생들이 세 연사를 각각 찾아가서 문답은 거의 5시까지 계속되었다. 신회장은 이후 연사들과 관계자들을 호암교수회관으로 초청하여 석식을 대접하였다. 많은 참석자들이 이러한 강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하며, 미주동창회는 이 특별강의를 내내에도 계속하기로 했다.

<이강원 교수>

/ 세미나 내용 /

실리콘밸리의 창업과 기업문화, 기업가 정신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 기술이 다른 기술들과 융합하여 기계의 지능화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현재의 직업 중 약 47% 또는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사라지는 일자리를 중에는 단순노동 뿐만 아니라 회계사, 교사와 교수, 의사, 재무분석가, 사무직도 많은 부분이 포함될 것이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의 취업기회도 급격하게 감소될 수 밖에 없다. 미래는 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경제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서 주인이 되느냐 다른 사람의 고용인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의식구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창업정신은 리더십과 주인 의식을 포함한 다. 대학은 취업중심의 교육에서 창업중심의 교육으로 혁신되어야 한다. 창업의 기본조건은 대부분 “창의성”이지만, 창의적인 기술을 활성화시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창조하고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용기(brave-

ness)이다. 창의성에 용기를 결합시켜야 혁신(innovation)이 가능하며 이 혁신을 이루는 사람이 창업자이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고유의 창업 eco-system 이 장기간에 걸쳐 고유의 문화로 발전되어 있다. 이 실리콘밸리 창업 eco-system 은 재능있는 인재, 도전정신, 상호협력, 풍부한 자금지원, 정부와 대학의 지원, 성공의 사회화 등 세계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성들을 포함한다. 실리콘밸리는 반도체 산업에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반도체 이외에 소프트웨어와 앱, 소셜 네트워크 등 컴퓨터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생명공학,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발전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를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은 투자자이다. 미국 내 투자자들의 약 40% 가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으며, 이 외에도 유럽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모여든다. 실리콘밸리는 전 세계의 수재들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모여들어 경쟁과 협력을 하는 곳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이구형 박사

Co-Founder/CTO
NeuroSky Inc. and
NeuroWidget Inc.

는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기업의 실패도 많이 일어난다. 창업한 회사의 성공률은 한 자리 수로 낮다. 실리콘밸리에서는 “누구나 창업하지만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다”.

실리콘밸리는 기회의 땅이지만 약속의 땅은 아니다. 기회의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바꾸는 것은 창업자의 재능과 노력이다.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창의성, 시장에서의 생존능력,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 커뮤니케이션 능력, 정정당당한 경쟁과 협력 등의 능력과 노력이 융합된 기업가 정신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는 필수조건이다. 실리콘밸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workaholic이라고 할 수 있다.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며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높은 급여만큼 높은 성과를 요구하며, 업무의 강도도 높다. 실리콘밸리에는 “워라벨”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필요한 능력을 가진 인재들을 찾는다. 기업들은 spec이 아닌 실력을 가진 전문가를 원하며, 기

업 입사 인터뷰는 서류심사가 아닌 실제 업무 내용에 대한 능력을 구체적으로 테스트한다. 급여도 능력과 실적에 따라 결정되며, 주기적으로 업무 실적을 평가하여 승진 또는 퇴사를 결정한다. 기업에서의 업무는 대부분 팀 프로젝트이며 팀장이 직접 업무를 관리하고 팀원들의 실적을 평가한다. 개인별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어지며 책임도 엄격하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와 편의도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중의 하나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호칭이 기업가(entrepreneur)이다. 기업가라는 호칭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결과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돈을 버는 과정이 창의적이고 정직하며, 직간접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하여야 한다.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보여지는 좋은 인성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력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즈니스의 성공으로 이어진다. 기업가정신의 핵심에는 인성이 있다.

우리 서울대 젊은이들이 정보의 올바른 선택과 활용을 통한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동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세계의 인재들과 경쟁과 협력을 하며,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기 바란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동 . 창 . 회 . 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본부석에 마련된 배너 앞에서.



중앙도서관 관정관 앞에서



오세정 총장과 신용남 미주동창회장



관정관 내부



MOU 체결 조찬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한 ‘시간여행’

SNU홀, 관정관 등 둘러보며 변화된 모교 발전상 체험

서울대 정문을 들어서면 대학교 학생 때의 시절로 되돌아가는 싱그러움이 느껴진다. 학생들의 활기찬 젊은 모습이 내가 그 모습으로 교정을 걷는 것으로 착각이 든다. 한 번쯤은 꼭 참여해서 마음의 고향으로 따뜻함을 느껴보자

14일 서울대 73주년 개교식

서울대 미주동창회 동문들은 10월 14일(월) 오전 11시 문화관 중강당에 제 73주년 개교식에 참여했다. 오세정 총장은 기념식사에서 "지금은 내실 있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시기"라며, "수월성과 공공성을 추구하기 위한 서울대의 신실한 실천과 전진"을 강조했다. 장학근속한 교수 및 직원, 그리고 봉사우수학생(관악봉사상,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등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제2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수상자에게 선정증서를 수여했다.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故정영호 선생(前서울대 자연대 교수(1924년 출생, 1994년 별세)/정영호 선생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대한민국 독립유공(1963년)) 표창했다. 신수정 총동창회 회장이 축사를 하였다.

20일 총장실 방문 /버드골 등반

오전 9시 서울대 대운동장에서 미주동문들을 총동창회 이형균 전 부회장과 김남주 총동창회 신문편집장이 총장실로 안내해 주었다. 홍기현 교육부총장께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대신하여 질의 응답 면담시간을 가졌다. 서울대의 예산과 심의, 외국에서 박사학위 한 교수와 한국에서의 교수의 차이점, 교육제도, 장학제도, 기부금 등에 대한 문답으로 서울대의 여러면을 보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홀커밍데이 행사 후 신수정 총동창회장의 저녁 만찬이 호암교수회관에서 있었다. 이형균 전 부회장의 건배사 강연이 너무 재미있어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음바다가 되었다.

20일 SNU HALL 견학 및 관람

SNU HALL은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종합적

으로 알고 싶은 분을 위해서 학교의 역사에서 부터 환경, 글로벌, 미래의 비전까지 개교 이전부터 현재까지 모습이 전면 스크린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이다. 한국전쟁, 4.19혁명 등 서울대 재학생들의 추모의 벽이 설치되어 있다. 대동여지도, 조선왕조실록, 학문분야 현택환 중건석좌교수의 나노수류탄, 김수봉 교수의 중성미자 변환상수 연구, 장학금 지급을 부터 개별전공, 졸업 후 진로 정보까지 방문객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모님께서는 SNU HALL은 중요한 안내소가 된다.

21일 중앙도서관 관정관 투어

도서관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차분한 분위기와 현대화된 건축은 학업의 열정이 절로 나는 압도적인 느낌의 공간을 느낀다. 바닥의 온돌을 이용하여 온도를 조절하는 미세한 소음도 절제함은 참으로 섬세하다. 서울대학교 관정관은 2015년 2월23일 개관했으며, 기존 서울대 중앙도서관의 시설 노후와 학업 공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도서관 뒤에 새로이 지어진 8층 도서관이다. 관정관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도서관 신축 기부금 모집 당시 가장 많은 액

수의 기부를 한 이종환 회장의 아호 관정(冠廷)을 따왔고, 총 8층으로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총 면적은 약 25,834m²이다.

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의 이종환 회장이 한국역사상 최고의 단일 600억원 기부금과 교원 및 각종 동문, 일반인 700여명 동참 100억원 모금 총 700억원으로 지어진 도서관이다. 4,000여석의 열람석을 포함하는 관정관은 일체의 소음을 금하는 '딥콰이어트 존(Deep Quiet Zone)' 등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000평의 옥상 정원을 보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충분한 휴식의 공간임을 느꼈다.

도서관 투어 후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께서 총장실에서 미주동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1일 장학빌딩 투어

10억 이상을 기부하신 동문님들의 동판 앞에서 서울대 동문이면 한 번쯤은 나도 여기에 이름이 올려지기를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잠시 생각하게 해준다. 위대한 동문이라 생각된다. 여행의 마지막 날 마무리를 하면서 "잠시 일에서 벗어나 고국방문과 홀커밍데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동문님들께 감사와 남은 여행도 즐겁게 많은 추억을 갖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신용남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조직국장 백옥자>



보성녹차밭



민속촌



민속촌



청남대



청남대

신비롭고 아름다운 ‘서해의 자연’ 만끽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 순천만 국가정원 등 견학

10월 16일-19일 서해여행

대통령 전용 별장 청남대는 원호대사가 천년후 세 개의 물길에 고이면서 '왕자형 지형'이 생기면서 왕이 쉬어가는 곳이 될것이라고 예언, 1300년 후 대청호가 생기면서 대통령별장 청남대가 들어섰다. 5십5만8천 평 460ac청남대는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 라는 의미로 붙은 명칭. 이곳은 박정희 대통령시작해서 전두환때 1980년 완공된 대청담 준공식에 참석한 전두환 대통령이 주변경관이 빼어나다는 의견에 따라 1983년 6월착공 대림이 6개월 공사로 12

월에 완공되고 조성당시엔 "봄을 맞이하듯 손님을 맞이한다." 는 의미로 영빈관 개념으로 영춘재란 이름으로 준공되어 대통령들은 휴가나 명절때 매년 4-5회 많게는 7-8회 20여년간 89회 472일을 이곳에서 보냈다 휴가중에도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과 최고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의 수질정화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다. 1986년 7월 18일 청남대로 개칭함 2003년 노무현대통령때 4/17일 하룻밤을 묵은 후 4/18일 충청북도에 이양. 경비병들이 다녔던 길을 6명분의 대통령과 연관지어 6개의 길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 중 가장 편하

고 아름다운 전두환대통령길을 걸었다. 여행자 모두 대통령이 된 기분으로 산책을 했다.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이다.

순천 수려한 산세와 울창한 숲 강천산 군립공원을 걸으면서 아끼지기한 강산에 모두 취했다. 키가 큰 식물 담양 죽녹원은 숲속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쾌함을 주었다. 2015년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순천만 국가정원은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감동을 선사하며, 클래스가 다른 꽃들의 향연을 느낀다.

전라남도 보성군 보성읍에서 회천면 사이에 걸쳐 있는 차 재배단지 보성녹차밭에서는 산 전면이 다 녹차밭이다. 공방법에 따라 발효차(서양의 홍차)반발효차(중국의 우롱차)뒤음차(우리나라 녹차)전차(일본 차) 등이 있다.

통영 케이블카는 대한민국 내에서 가장 긴 1,975m의 케이블카로 정상에 오르면 한려수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갔다. 비를 맞으며 정상에서 보았을 때는 안개로 아래 풍경을 못 보았다. 그러나 안개낀 정상도 볼 만했다.

이도를 가는 날 비가와 한산섬으로 대신 했다. <조직국장 백옥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동창회 오기 딱 좋은 나이지”

남가주총동창회 원로선배 초청 오찬

200여 명 참석... 음식·노래·유희 즐기며 뜻깊은 시간

100세 시대가 촉박이 되려면 몇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다. 소위 말하는 건재사상, 즉 건강-배우자-경제력-일-친구다. 하지만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있다. 장수를 축복해 주고 나이 든 어르신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시니어들이 젊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런 점에서 학교 동문회는 나이든 시니어들이 얼마든지 젊은 후배들과 어울릴 수 있는 최적의 장이다.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가 5년째 개최해 오고 있는 '원로 선배 초청 오찬' 행사 또한 그런 자리라 할 수 있다. 지난 10월 19일 서울대 남가주 동창회(회장 한귀희)는 올해도 64학번 이상 선배 200여명을 초청 맛있는 점심과 신나는 공연으로 원로 선배들의 연필핀을 '딱~딱' 울게 만들어 화제가 되었다. LA한인타운 옥스퍼드파라스 호텔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는 1부 민일기(약대 69) 차기회장의 참석자 소개와 오홍조(시대56) 상임이사의 축사, 감사패 증정 등에 이어 2부 동창

회 임원진들이 준비한 노래와 유희 외에 경품 추첨, 노래경연대회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최용준(수의대 81) 추무국장장과 손영애(음대85) 부총무국장장의 재치있는 사회로 진행된 2부 순서는 푸짐한 경품 잔치와 더불어 주훈 동문(음대 69)의 특별 색소폰 연주까지 곁들여져 더욱 흥을 더했다.

2부 순서의 하이라이트는 치열한 예선을 뚫고 올라온 6명의 노래경연대회로 홍광식(공대), 방석훈(농대 55), 제영혜(생활과학대 71), 김자성(의대), 송미선(음대), 김은혜(의대) 동문이 자웅을 겨뤘다. 이들은 가창력, 의상, 무대매너, 관중 호응도 등을 기준으로 열띤 대결을 벌인 결과, '숨어 우는 바람 소리'를 부른 제영혜 동문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제 동문은 이번 대회를 위해 2주간 특별 노래 연습까지 받으며 연습을 했을 뿐 아니라 특별 무대의상을 차려입고 나와 갈채를 받았다. 또 올해 총동창회 임원들로 구성된 '진나빛, 진라는 나의 빛' 공연단의 연주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16명으로 구성된 이들 공연



최고령 동문 김영기(약대 41) 선배님.

단은 6주간에 걸친 맹연습 끝에 '홀로 아리랑' '내 나이가 어때서' '아모르 파티' 등의 노래를 현란한 유희를 곁들여 완벽히 소화해냄으로써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준(법대 54)과 손수용(수의대 60) 동문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또 올해 총동창회 주최 모든 행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한효동(공대 58), 지인수(상대 59), 김병연(공대 68), 서치원(공대69) 동문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여러 원로 선배들은 "이렇게 멋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하다"며 "이런 행사 덕분에 몸도 마음도 한결 더 젊어진 기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행사 후 이어진 저녁식사 겸 뒷풀이 식당에서 한귀희 회장은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올해 동창회 여러 활동을 재미있게 마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올해 임원들이 술선수범하여 동창회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성원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글 이종호 사업국장
사진=신호근 사업국장,김옥준 문화위원장



진나빛 공연단과 함께 유희하는 동문들.



원로 선배님들을 맞이하는 임원단.

/ 행사 화보 /

/ 남가주총동창회 원로선배 초청행사 화보 /



행사를 준비한 임원과 준비위원들.



행사를 즐기는 참석자들.



▲특별상 수상자(한효동, 김병연, 서치원 동문)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받은 제영혜 동문



홍광식(공대) 동문 부부.



진나빛 공연.



선물 증정시간.

해외문협 '해외문학상' 박윤수 동문 선정

(문리 48)



해외문협이 주최하는 '제21회 해외문학상'에 박윤수(사진) 동문이 선정, 9월31일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대상 수상자인 박윤수 시인은 수상

시 '보슬바를 낭독하였다. 박윤수 시인은 소장에서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쓰는 시가 줄줄 나왔다. 그러다가 감의를 듣고 시를 이렇게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시 쓰기가 더 힘들어지고 써 놓는 시가 우습기도 했다"라며 "한번은 59년동안 동행해온 집 사람을 옆에 앉혀놓고 그의 옛 모습을 상기하는 시를 들려 주니까 집 사람이 평평 울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내 시도 사람에게 감동을 줄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조윤호 심사위원은 "박윤수 시인의 수상작들은 노년의 삶에 관한 시인의 새 경지를 개척한 데 대해 크게 주목되는 서정시의 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박윤수 동문은 서울대에서 학사를 앞버터대 신시내티대에서 물리학 석박사를 받았고, 렌셀러 폴리테크닉대 서울대 존스홉킨스대에서 초빙 교수를 역임했다.



가운데 왼쪽 조옥동 동문과 오른쪽 백순 동문.

'운동주 미주 문학상' 조옥동 동문 수상

(사대 58)

특별상에 백순 동문 (법대 62)

연세대학교 미주 총동문회가 제정한 '운동주 미주 문학상' 제 2회 수상자로 조옥동 동문(문학 58)이, 특별상은 백순 동문(법대 62)이 선정됐다. 조옥동 동문은 서울사대 출신으로 1997년 본보 신춘문예작품 시 부문에 입상했고 '현대시조' '한국수필' '시사'로 등단했다. 재미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제 2회 해외꽃시인상을 비롯 제1회 재외동포문학상, '현대시조' 작품상, 경희 및 한국평론

가협회 해외문학상을 수상했다. 조 동문은 수상 소감을 통해 "고등학교 때 윤동주의 '서시'를 만난 뒤 시인이 됐는데 운동주 문학상을 받게 돼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다"면서 "시인이 되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했던 운동주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백순 동문은 서울대 법대와 고려대 경제대학원을 거쳐 오하이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취득 후 연방노동부 선임학자로 28년간 근무하다 은퇴, 워싱턴 버지니아대학교교수로 활동 중이다.

장동만의 세상살이



장동만 (문리 55)

FACT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와 반지에 입을 맞추려할 때 마다, 반지 끈 오른쪽 손을 재빨리 뒤로 빼는 동작이 영상에 잡혔다. 교황청 공보실은 "위생 때문이다. 교황은 사람들 사이로 세균이 번지는 위험을 피하길 원하신다."고 밝혔다.

MY 2 C
우러러 하지 않는 聖下, 천민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시는 교황님의 그 聖스러움에 작은 黑點을 남기실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교황님은 그런 虛禮虛飾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는 眞意가 왜곡 발표된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03/08/19>

시사, 정치 등 다양한 이슈와 소재에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트위터에 짧게 올린 글들을 소개하는 코너.



남가주 총동창회 후원 음대 정기연주회 ‘결실의 계절’ 풍요의 선율 선사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 바람이 스산했던 지난 9월 15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김양희)에서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Zipper Hall에서 서울대학교 남가주 총동창회 후원으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450석을 가득 매운 관객들은 음대 동문들의 연주에 매료되어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보냈다.

찬양, 경배한다는 뜻이고 마리아는 천주교의 성모마리아를 의미한다. 박선우 동문의 호소력 짙은 표정 연기와 열정적인 연주는, 우리로 하여금 황홀한 경지에 이르게 했다. Oboe 김수영(음대) 동문이 연주한 Ennio Moricone 작곡의 "Gabriel's Oboe, theme from The Mission". 이 음악은 영화주제가로서 그 아름다운 선율에 절로 숙연해지게 하는, 널리 알려진 곡이다. 김수영 동문은 따뜻한 감성을 불어 넣으며 화사한 음색 속에서 순수함을 표현하여 환호를 받았다.

Bass 장진영(음대 88) 동문의 변훈 작곡 "명태": 남성적이며 동시에 리얼리즘을 가미한, 언어의 역양과 사실성에 충실한 곡이다. 해학적이면서 비장미가 흐르고 리얼리즘이 가득한 시로 인간 삶의 애환을 명태로 치환하여 위로를 주는 가곡이라고 어느 평론가는 말한다. 장진영 동문의 깊이 있고 폭 넓은 성량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안소연(음대)과 박현정(음대 84) 동문이 연주한 "Slavonic Dances for Piano, four Hands". 슬라브 민요나 민속 무곡에 관심이 많았던 드보르작은 브라암스의 형가리 무곡집에 영향을 받았고, 이 곡은 드보르작의 출세작이 되었다고 한다. 풀가, 폴로네이즈 등 민족적 색채가 짙은 무곡의 리듬을 다채롭게 살렸고 소박한 표현이 대담한 전조 속에 이루어져 있다. 두 동문은 완숙한 테크닉과 박력있는 연주로 특유의 색채를 표현했다.

윤희진(음대 99)과 최고니(음대) 동문의 "Concerto for Harp No. 6 in B flat Major, Op 4". 이 곡은 헨델의 협주곡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레퍼토리 중 하나다. 시냇물 흐르는 계곡이나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을 연상시키는 이 곡은 TV 방송 프로그램 안내 등에 많이 쓰여져 우리 귀에 익숙한 곡이다. 두대의 하프가 주고 받는 선율적 대화는 아름다운 조화, 그 자체였고, 고대 아름다운 영화를 연상시켰다. 해마다 그래 왔지만, 올 해도 음대 정기연주회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훌륭한 음악회였다. 더우기 일반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레퍼토리로 관중들의 호응을 많이 받았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어느 날, 음악이 우리에게 안겨 주는 풍요를 마음에 가득 안고 돌아왔다. <홍선례 문화국장>

민병갑 소장 '재외한인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문리 63> '재미한인의 모국과의 초국가적 관계' 주제

재외한인사회연구소의 제9회 학술대회가 지난 10월 25일 뉴욕시립대학교 쾨츠칼리지 The James Muyskens Conference Room at the Summit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재미한인의 모국과의 초국가적 관계 (Korean Americans' Transnational Ties to the Homeland)"를 주제로 총 15명의 학자들이 참석해 과거에 비해 모국과 더욱 활발히 교류하게 된 재미한인의 삶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다. 재미 한인 이민자들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 북과 같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모국과 매우 가깝고 깊게 연결되어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연계는 특히 한인 이민자들의 자녀교육

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한인 이민자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해 온 초국가적 사회운동, 다양한 문화작품을 통해 발현된 재미한인의 삶 속에 내재된 모국과의 초국가적 연결성, 재미한인의 모국방문 동기와 경험에 대한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설립자이자 소장을 맡고 있는 민병갑 쾨츠칼리지 사회학과 석좌교수는 이제 설립 10주년을 맞는 연구소가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인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보다 자세한 연구소의 활동모습은 KoreanAmericanDataBank.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대 남가주 동창회 정기월례모임

40여명 참석... 차기후보 선출 등 논의

지난 10월 4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최진석)에서는 용수산 한식당에서 정기 월례모임을 개최하였다. 40여명의 동문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채규환(법대 69) 재무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최진석 회장(법대 64)의 인사말에 이어 차기 회장 후보 선출과 후원금 모금, 그리고 11월 20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용수산 한식당에서 있을 서울대학교 Law School 장승화 원장 미국 방문 환영 만찬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민경훈(법대 78) 동문이 최근 발간한 신간 서적 "야스펜에 관한 명상" 소개에 이어 단체 사진 촬영이 있었다. 또한 남가주 전 총동창회장인 이기준(법대 54), 권혁창(법대 57) 동

문과 강경수(법대 58), 김선기(법대 59), 김종표(법대 58), 윤경민(법대 55) 등 6명의 동문들이 법대동창회에 기부금을 전달하였고, 민경훈 동문은 이날, 저서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였다. 강경수(법대 58), 김선기(법대 59), 오문성(법대 56), 이기준, 최수일(법대 55), 최진석(법대 64) 등 6명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날 음식을 제공한 김동산(법대 59) 동문에게 큰 박수로 답례하였다. 끝으로 오는 10월 19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스포드 호텔에서 개최될 월로선배 오찬 행사에 대한 참석을 당부하며, 연말에 있을 2019년 송년회 행사에 대한 안내 광고가 있었다. <홍선례 문화국장>



'기암절벽'에 감탄하며 '산정호수'에서 힐링

'뉴욕 골든클럽' 가을행사, 미네와스카 주립공원 하이킹

2019년 10월 24일 천고마비 계절에, 뉴욕 골든클럽 연례 가을 행사로 Minnewaska State Park 하이킹이 있었다. 뉴욕 Thruway I-87 exit18에서 Rt299로 좌회전하여 SUNY New Paltz 대학촌을 지나 Rt44/55에서 우회전하여 Mohonk Preserve 고개를 넘어 산간도로를 따라 좌측에 입구가 있는 Minnewaska State Park

은 동북부의 그레드캐년으로 불리울 정도로 기암절벽과 산정호수가 잘 어우러진 경관이 빼어나, 뉴욕동창회 29대 김세중 회장과 30대 신용남 회장때 2년에 걸쳐 동문 하이킹 행사를 갖기도 하였다. 개척 시절에 Resort Area로 개발되어 Hudson강 유람선과 연계하며 마차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안내했으나 자동차가 보급

되면서 중단되고, Carriageway는 여름에는 산책로, 겨울에는 Cross country ski trail로 이용되고 있는데, 해발 2,000'의 거대한 암석과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Minnewaska Lake에서 출발하여 산책로를 걷다보면 시루떡 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는 암반 위를 걷는 Ridge 코스 구간도 많은데, 주변은 온통 부르베리 밭이다. Echo Rock에서 오렐라면 따끈한 국물에 도시락 점심을 나누어 먹으며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한껏 즐겼다.



아틀란타동창회 야유회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가을정취' 만끽하며 동문에 다져

아틀란타동창회 야유회... 이영진 회장 추대

지난 10월6일, FORT YAGO GEORGIA STATE PARK에서 아틀란타지부 야유회가 열렸다. 이날 70여명의 많은 동문 및 가족이 참석, 오랜 무더위 끝에 모처럼 찾아온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야유회를 즐겼다. 이 자리에서 매달 비상위원회 김중구(수의 73), 이영진(공대 76)을 중심으로 9회 사랑방모임을 가져 다양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해결해 왔는데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동안 공식이던 회장단을 구성을 발표하였다. 회장에 이영진(공대 76·사진), 수석 부회장에 김재호(공대 80), 부회장에 배혜영(음대 79), 최화진(음대 85) 동문이 추대 되었다. 현재 아틀란타 지부에서는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골프대회와 후원금 모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선발된 동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12월 1일에는 Saint Ives Country Club에서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공대 80), 김만복(자연 72), 배혜영(음대 79), 최화진(음대 85) 동문이 준비와 진행에 수고 해 주었고, 김서영(문리 68) 동문이 케약을 제공해 주었다. 이날 행사는 바베큐, 세미나, 산책을 즐기며 동문간의 우호를 다지는 시간이었다. 현재 아틀란타 지부에서는 장학위원회가 구성되어 골프대회와 후원금 모금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선발된 동문들 또는 그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또 12월 1일에는 Saint Ives Country Club에서 송년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 성료

지난 9월14일 시카고 동문들의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추계 골프 Outing 행사에 26명의 동문이 참석, private club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관악클럽 신택수동문이 주관하고 김현석 골프시간사께서 도와주고 상품 기증도 했다.

눈부시게 푸르른 오후, 동문들과 함께하는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여자 gross에 Sally 정, 남자 gross에 오병진, 여자 closest에 김승주, 남자 closest에 신택수 동문이 수상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 SNU Alumni Association USA -

종신이사 추대



민흥기 (문리 61)

민흥기 이사는 61년 문리과학 심리학 과를 입학 동교 조교와 강사를 거쳐 73년에 도미, 20여년간 개인사업 후 은퇴, 현재는 Charlottesville va 에서 꽃, 야채 기르며 전원 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아내 또한 서울대 66학번 간호학과 출신이다.



이회백 (의대 55)

이회백 이사는 61 의대를 졸업, 원주 기독교병원 외과 수련과 군 복무 후 69년부터 4년간 뉴욕 Kings County Hospital, 72년부터 Fairbanks Memorial Hospital에서 오랜기간 근무 후 2004년 은퇴, 현재는 시애틀에서 거주 중이다.

'시카고 동창회' 2차 이사회 개최

이사진 등 72명 참석...차차기회장 추천, 장학금 등 행사 논의



시카고 서울대동창회 2019년도 2차 이사회가 BBQ Garden에서 10월 13일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40명의 이사과 배우자 포함 72명이 모여 4시30분 와인과 함께 정담으로 시작되었다.

장윤일 수석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장윤일 수석부회장 선장과 김병윤회장의 이사정족수 확인개회 순서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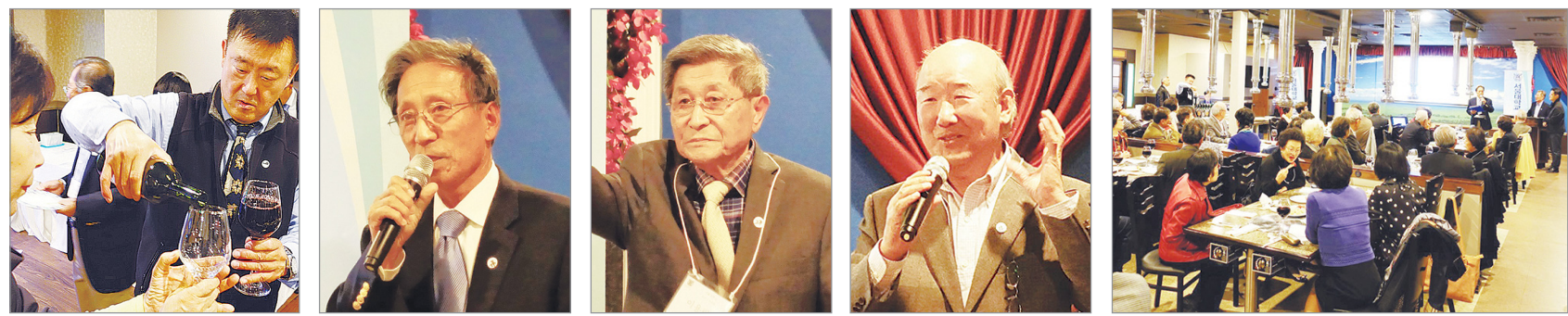
이어 임원 및 참석이사 소개 후 1차 이사회 회의록 인준하였다.

특히 이날 2021년 차차기회장으로 홍혜례 인선위원장과 김윤하(공대 66)동문이 추천되었다.

또한 장학생 선발 경과보고에는 47명의 지원자중 11명을 선정하여 2,000달러의 장학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장학생선발위원장은 김병윤 동문이 인준 되었다.

이어 김수현 재무가 2019년도 재무 중간 결산보고를 하였다. 뒤이어 김동업 섭외가 2019년도 잔여행사보고로 이사회 순서를 마쳤다.

/ 이사회 회보 /



와인 시음회 행사 김병윤 시카고 동창회장 이용락 이사 장윤일 수석부회장 회의중인 모습



독서클럽 회원들. 왼쪽부터 황선옥, 윤봉수, 박창만,박창만, 연경자, 박중희, 최의필,홍혜례, 김정수

'독서클럽' 독후감 발표하며 토론

매년 책 선정하여 독후감을 발표하는 시카고 '독서클럽'은 금년에는 다음과 같이 두권의 책을 선정하여 지난 9월 21일 11시에 우리마을식당에서 모여 토론후 점심을 함께하였다. 이날 선택된 서적은 첫번째, 러시아의 Putin정부의 부패상과 정의를 위해 싸

우는 자서전적 이야기를 다룬 'Red Notice by Bill Browder'. 두번째는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으로 닭장에 갇힌 암탉 앞쪽도 결코 이루어질수 없을 것같은 꿈을 꾸는 어른동화로 꿈이란 내가 이루어내는 기적을 그린 내용이다.

60세 이하 소모임 '관악클럽'

세대 뛰어넘어 동문애 나눠

시카고의 서울대 동문회에는 관악 캠퍼스에서 수학 및 졸업을 한 60세 이하의 동문들의 소모임 '관악 클럽' 이 있다. (60세 이상 동문들은 '골든 클럽'에 소속) 회원수는 약 70명, 연 4회 정기 모임에는 10~20명 정도 참석한다. 20~30대 동문들은 대부분 학업 중인 경우

가 많아 동문 모임에 나오기 어렵고, 30-40대 초반 동문들도 직장 및 육아로 인해 저녁 나들이가 쉽지 않지만, 한번이라도 모임에 참석하는 회원들은 단출하지만 화기에 애한 분위기로 인해 쉽게 가까워지곤 한다. 정기모임시 대부분 2차 3차까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 꽃을 피우며, 간혹 정기 모임 사이 불링 나잇 등 번개 모임도 가지고 있다.



2019년 4월 모임. (좌측 정면부터 시계순) 김동업 (사대 86), 봉운식 (사회대 96), 이은영 (공대 86), 황규섭 (음대 83), 변용국 (미대 81), 홍석중 (자연대 86), 황찬주 (문리대 84) 부부, 신태수 (의대 88) 앞쪽 우측부터 김수현 (생활과학대 98) 가족, 조현아 (사회대 88), 이태호 (공대 87) 부부



/ 미국시인 소개 /

LAUGHTER / WALL

Isaac Goldemberg

LAUGHTER

There was a time when humans gathered in squares, parks and stadiums to laugh together and all would explode in loud giggles looking at one another.

There were those who laughed to become angry and those who laughed to combat it.

Yet others, from faraway places, laughed for the spontaneous pleasure of the body and fell to the floor laughing themselves silly.

Others laughed at each other rather than at themselves. Their laughter was close to black humor.

Others laughed with plays on words. There were those who exorcised pain through the medium of laughter making fun of themselves.

Where laughter did not exist, humans lived more given to the metaphysical.

They would stop in front of a mirror, and they would neither speak nor make funny faces.

Isaac Goldemberg is a bridge. He connects the Old World to the New. He links Lima to The Bronx. His prose is poetic; his poetry tells significant stories. As Director of the Latin American Institute at Hostos College, he linguistically champions the Hispanic and English idioms. It is not for no reason that his novel The Fragmented Life of Doo Jacobo Lerner was selected to be among the most important works of Jewish literature of the last 150 years. Read and enjoy this great poet of two worlds.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웃음

같이 웃기 위해
광장에 공원에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
서로 마주 쳐다보고 깔깔거리며 웃어댄 적이 있었다.
화내기 위해 웃은 사람도 있었고
화내지 않기 위해 웃은 사람도 있었다.
먼 데서 온 어떤 이들은
육신의 즉흥적인 쾌락을 위해 웃었는데
얼간이처럼 웃다가 바닥에 넘어지기도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스워서 웃기보다 서로 냉소하며 웃었다.
그들의 웃음은 가히 암울한 해학이었다.
재담을 듣고 웃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 자신을 놀리며 웃음 요법을 통해
고통을 몰아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웃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 인생은 심각하기만 하였다.
거울 앞에 서서도 그들은
말하지도 않았고 우스운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Published in PLR 37
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Stanley H. Barkan with Wanda Rivera and Roy Cravzow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THE WALL

Alone, the wall that divides human from human doesn't know how to break itself down.

It doesn't know how.

It doesn't know.

It doesn't...

Translated from the Spanish by Stanley H. Barkan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벽

인간과 인간을 가르는 벽은 혼자서는
저 자신을 어떻게 허무는지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ISAAC GOLDEMBERG is a Peruvian writer living in New York. He is the author of many collections of poetry and novels, among them, The Fragmented Life of Don Jacobo Lerner, selected by the National Yiddish Book Center as one of the greatest Jewish works of the last 150 years. He is Distinguished Professor at Hostos Community College of CCNY, where he's also director of the Latin American Writers Institute.

<편집자 주>

문학은 메타포이다. 은유가 내포하는 겹겹의 의미로 인하여 좋은 작품은 독자로 하여금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인도하며 그의 영혼을 춤추게 한다. 시의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시인의 고독, 슬픔, 연민 그리고 그들의 기쁨, 환희를 만날 수 있다. 9월호 부터 [미국 시인 소개]의 난을 신설하며, Cross -Cultural Communications (CCC)을 50년간 이끌어온, 미국시인 스탠리 발칸의 추천을 통하여, 미국시인들의 시작품을 감상하려한다. 우리가 그들이 쓰는 작품을 가까이 접함으로써, 아메리카를 심층 깊이 이해하는 통로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워싱턴 DC 서울대 동창회의 '제4회 자선음악회'에 함께 한 동문 음악회 관계자들과 신용남 미주 동창회장. 정평희 회장과 함은선 음악단장(왼쪽)에서 4, 3번째)

가을밤 수놓은 품격있는 클래식 음악

워싱턴 D.C. 동창회 '제4회 자선음악회' 200여명 참석 성황

서울대 동창회 워싱턴 DC 지회(회장: 정평희)는 10월 26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솔레진저 음악당에서 4회째 맞는 자선음악회를 개최 하였다. 이 자선 음악회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회 공익 사업의 취지로 2013년 가을에 시작되어 역량이 2세 음악도들을 무대에 세우고 지역 사회에 고품격의 클래식 음악을 소개하며 그 수익금을 장

애우를 돕는 취지의 음악회이다. 지난 3회를 거쳐 좋은 워싱턴 동포 사회에서 품격 높은 행사로 평가를 받아온 음악회가 올해에는 줄리아드 음악원 재학생과, 졸업생 총 음악도 5명을 초청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동포 사회에 선사 하였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참가한 올해의 음악회 1부 순서는 '생상/이자의 바이올린과 피

아노를 위한 왈츠 형식의 에튀드에 의한 카프리스 연주'로 시작됐으며 차크린의 눈물(첼로, 오펜바하), 리버덴스(피아노5중주, 피아졸라), 보케리니 소나타(바이올린과 베이스 듀엣), 드보르작 피아조 3중주,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네이즈'(첼로) 등을 선보였다. 음악회2부는 시카 장애인인 조아라의 리코더 연주와 피아노 5중주 반주로 '

가브리엘의 오보에'(영화 미션 주제작)로 시작되었으며 참석한 모든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음악회의 절정이며 마지막 곡은 슈베르트의 피아노5중주인 '송어/송어'였다. 5악장 전체 를 지루함을 느낄 수 없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진행된 연주는 모든 청중들의 스탠딩 오베이션을 받는 훌륭한 연주였다. 가을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수놓은 음악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이 워싱턴 DC 동창회의 노고와 취지에 감사해 했다. 연주자는 제임스 김(첼로), 에이미 오(바이올린), 이 성진(비올라) 리지 번즈(더블 베인스), 이 윤(피아노) 5명이다.

<기고- 함은선>

트럼프가 트위터에서 10대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조롱했다고 CNN이 최근(2019년 9월 24일) 보도했다.

우리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듯이 현대 서양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 (placebo effect)' 라고 약성분이 전무한데도 약품이라고 믿으면 그 어떤 약 못지않게 약효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신앙을 통해 어떤 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반대로 신앙을 포기함으로써 좀 더 참다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신앙이란 마음문을 닫느냐 여느냐에 따라 독선독단의 편파적으로 편애하는, 인격보다 못한 신격의 신답지 못한 신을 믿느냐 마느냐는 문제일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없다' 시리즈가 유행했다. '예수는 없다' '붓다는 없다'를 비롯해서 '한국은 없다' '한국사는 없다' 가 있었는가 하면 '깨달음은 없다' 라는 책까지 나왔다. 그리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나 '아줌마 논객 이경숙의 '노자를 웃긴 남자가' '먹물은 없다'가 되었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또 하나의 '예수는 없다'가 되었다면 어떤 스님이 '절이 죽어야 부처가 산다'는 책을 쓸 법도 했다.

한편 허버드대 펠레그리노 석좌교수이며 미국 학술원 회원으로 20여 권의 과학 명저를 저술해 미국 국가과학메달과 국제생물학상을 수상한 에드워드 윌슨(Edward



이태상 (문리 55)

O. Wilson 1929 -)의 저서들은 한마디로 '생태계 없이는 인간도 없다'로 요약될 수 있을 테고, 인도의 과학, 기술, 생태계연구 재단의 대표로서 개발과 세계화란 명목으로 자연을 약탈하고 있는 서구문명을 비판해 제3세계의 노벨상인 '올바른 삶'을 기리는 상(Right Livelihood Award)' 수상자인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 1952 -)의 저서들은 '자연=여성, 과학=남성'으로 해석, 이성과 합리성 맹신에 생태재난의 주범이라며 직관, 유연, 포용의 여성성 회복을 주장한다. 과학은 어머니 대지를 죽였다며 '과학(남성)이 죽어야 자연(여성)이 산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 없이 인류 문명도 없다'는 결론이다.

이른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교리를 초월해서 사랑으로 대동단결하기는 커녕 수많은 교파로 갈라져 파쟁만 일삼아 왔으니 이교도 이방인 정벌에 나선 십자군이 또한 분열하여 혼란을 일으킨 나머지 진정한 사랑

학과 원효의 화쟁사상 그리고 단군의 홍익인간사상 등에서 인류의 구원과 진로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서구사회는 월등 우세한 총기와 화력의 힘으로 전 세계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서양 물질문명의 발달로 온 지구 생태계를 파괴, 인류의 자멸을 재촉해 왔으니, 더이상 기존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즉 정복의 대상으로서의 자연관, 착취 대상으로서의 대인관, 아전인수식의 선악관이나 흑백이론으로는 그 해답이 없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종교, 사상, 철학, 과학, 의학, 문학, 예술 각 분야에서 그 대표적인 서양의 선각자와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마치 중전의 주기도문 외우듯 몰아일체, 피아일체, 물심일체를 율조리는 것을 종종 듣고 보노라면 우리는 절로 회의의 미소 완이 일소하게 된다.

얼마 전 서양의 세계적인 과학자와 천문학자들이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평생을 두고 과학과 천문학에 전념해온 결과로 얻게 된 결론이 동물, 식물, 광물 가릴 것 없이 '생명은 하나라는 것과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별의 원소와 인간의 원소가 같은 물질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만고의 진리라면 우리는 이를 아주 어렵게 적부터 알았었지 않나. 여름밤 시골 마당에 돛자리 깔고 누워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별 하나 나 하나'라고 노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부터 많은 사람들이 믿어왔듯이 우리가 죽으면 별이 되는 것이라.

/ 삶과 예술 /

별 하나 나 하나



박평일 (농대 69)



자녀를 위한 기도

오, 주여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와
두려울 때 자신감을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며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본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평탄하고 안전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도전을 통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바로 설 수 있고,
패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자비를
배우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순결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웃음을 배우기 전에
울음을 겪고 싶지 않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에 더해,
그에게 풍부한 유머감각을 주시어
매사에 신중하면서도 자신에게 지나치게
심각한 인간이 되지말게 하시고,
그에게 겸허한 지혜를 주시어,
그가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하며,
진정한 지혜는 열려 있고,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과 관용 속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내 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나는 그의 어머니로써
감히 이렇게 속삭일 것임니다.
"나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노라"고

- 더글러스 맥아더



맥아더 장군과 그의 아들 아더

'우리집 심계명' 과 함께 깨 지난 이십여년 간 우리집 거실 벽을 지켜온 맥아더 장군의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아들 아더에 대한 기도문이라기 보다는 맥아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문 일지도 모르겠다. 맥아더 장군 하던 우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까만 썸그라스를 쓴 고집스런 군인 얼굴과 한국전 당시 중공을 핵무기로 공격해서 전쟁을 끝내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대통령 트루먼에게 맞섰다가 명령 불복종죄로 파면 된 후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 남겼던 퇴임사에 나오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는 명언이다. 그 명언은 맥아더 장군의 고유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젊은이들 사이에 널리 인기를 끌었던 한 유행가 가사 "노련한 고창병은 전투에서 죽지 않는다. 항상 신병들만 죽는다" 에서 인용했다고 한다. 그 사실이 어떻게 스크롤랜드 출신 이민 후예다운 낭만적, 시적 표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역사에 맥아더 장군만큼 찬반이 엇갈리는 평을 받고 있는 콘트라버설한 군인은 그리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는 태평양 전쟁의 영웅으로, 두번째 미 육군원수로, 미육군 사관학교 최우수 졸업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전인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으로 개편한 현대 웨스트포인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다. 또, 그는 종전 후 3년간 일본을 통치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백인 쇼군으로도 유명하다.

한편으로 맥아더를 한국전쟁 중에 명령불복종으로 파면 했던 트루먼 대통령은 들끓은 반대 여론을 향해 이렇게 항변했다. "나는 그가 대통령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했다. 그는 개자식이었지만, 개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해고하지 않았다. 만약 그랬더라면 장군들 중 4분의 3은 감옥살이를 해야 했을 것이다" 정치가는 정치가가 가야할 길이 있고, 군인은 군인이 가야할 길이 있다. 나는 이런 논쟁에 왈가왈부 끼어두고 싶지 않다.

미국사회에서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직업들이 직업군인, 경찰관, 소방대원들이다. 내가 살고 있는 워싱턴 지역에는 현역군인들, 예비역군인들이 유달리 많이 살고 있고 우리 동네만 해도 한 집 걸러 군인출신들이다. 그런 탓으로 내 직업상 고객들도 군인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내가 그들로부터 받은 일반적인 인상은 정직하고, 성실하며, 비교적 겸소하다는 점일 것이다.

내가 부러워하는 특이한 점 중 하나는 육사출신이나 해사출신 부모를 둔 자녀들이 실력만 되면 육사나 해사에 진학해서 군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점일 것이다. 그런 군인 가족들에 대한 좋은 인상 탓으로 나도 외아들 제임스를 해사나 육사에 보내려고 온갖 정성을 쏟아부었다가 본인의 반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맥아더 장군은 삼대째 장군 집안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육군장군 출신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은 한국전에 육군 소령으로 있었고, 유엔군 사령관 밴푸리트 장군의 아들 지미는 한국전에 공군조종사로 참전했다가 사망했으며, 마크 크라크 대장의 아들은 육군 대위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세 번째로 부상을 입은 후 퇴역했다. 2008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뛰어들었다가 부시에 패했던 아리조나 주 상원 존 매케인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모두 해군 사성장군이었고, 매케인 자신도 해사를 졸업한 후 월남전에 공군조종사로 참전했다가 포로가 되어 온갖 고초를 겪었던 국민적 전쟁영웅이다. 그러나 어찌 미국국민들이 군인들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무엇이 성공인가? 그에 대한 해답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미국의 19세기 지성 엘프 왈도 에머슨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 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 지는 것/ 이것이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소박한 성공론을 폈다.

또, 동시대의 시인 에밀리 디킨슨은 그의 시 "짧은 노래"에서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다./한 인생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면/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의 개뿔뿔뿔을 동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라' 고 노래했다.

나의 개인적인 성공에 대한 정의는 내 아내로부터 "여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시와 결혼을 해서 평생을 함께 살고 싶어" 하는 가슴에서 우리나라는 진심어린 고백을 듣고, 내 아들로부터 "아빠, 내가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고 싶어" 하는 진심어린 고백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에서 아직까지 나는 성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방랑객이다.

맥아더 장군의 외아들 아더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콜럼비아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후 이름없는 수필가의 생활을 했다는 사실과, 게이였다는 풍문, 뉴욕에서 작은 술집을 운영했다는 무성함 풍문들이 떠돌고 있을 뿐... 분명한 사실은 그가 평생동안 그 영광스런 맥아더 패밀리 네임을 숨긴 채 가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맥아더 장군이 그의 외아들 아더의 살아가는 모습을 하늘에서 지켜보며 "아, 나는 결코 헛된 삶을 살지 않았노라!" 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독자의 들의 판단에 맡겨두기로 하자...



서윤석 (의대 62)

/ 추억의 글 (하) /

오산 공군 기지에서 만난 젊은이들

<鳥山>

- 신동헌(농대 49)박사부부 편 -

<지난회에 이어서> 증명하고 지적적이었던 허영숙양은 주위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1955년 약혼자를 서울에 남겨놓고 한국에서 만난 미국기독교단의 주선과 보증으로 작은 교회가 있는 West Virginia에 위치한 Davis Elkins College로 유학을 왔다. 그곳은 탄광촌 산골 마을이었다. 그녀는 항상 서울에 있는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가 마음에 걸리지만 자신의 미래를 향한 젊은 날의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여의도 비행장에는 박순천 전 국회의원, 지인 최상덕씨가 떠나는 그녀를 환송하러 나왔다. 그녀의 수중에는 단지 10달러가 있었다. 떠나기전에 약혼한 이 두 사람은 유학 시험을 치루어야만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정보증이 없이는 떠날 수가 없던 시절이었다. 대한민국정부에서 관할하는 유학시험에서는 문제가 백지 한 장을 주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쓰라는 것이었다. 허양은 38선을 넘어 1-4후퇴때 피난중에 경험했던 공산당들의 만행과 그 참상을 자세히 썼다. 한편 평소에 공부를 잘 안하던 신동헌 동문이었지만 서양사에만은 늘 관심이 있었던 터이라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게 서양에서 시작한 공산주의의 전파과정과 소련으로 퍼져 원래의 이상적인 이론과는 달리 독재정권으로 되어 일어난 수천만의 자국민의 학살과 그 피해에 대해서 썼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결국 무난히 합격한 것이었다.



Lima에 있는 House of Hunan 에서 1997년경. 앞줄 왼쪽부터 Ohio Northern University와 자매결연을 한 한국대학 윤희로 총장부부, 가운데가 Ohio Northern University president Dr. De Bow Freed부부,오른쪽이 신동헌, 허영숙 박사부부

경기중학교 역사 선생을 하였고 검도를 하던 현재 California에 계신 형님이신 신동준 선생님(별명 메뚜기,검도 초단, 근대 일본론 저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신동헌 동문은 방위군 장교 복무를 마치고 서둘러 그녀가 떠날지 8개월 후인 1956년 약혼녀를 뒤따라 유학의 길에 올랐다.

West Virginia의 허양이 나가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동양사람을 처음 본 곳이었다. 주민들이 그녀에게 모두들 친절하고 10센트, 1불, 50센트씩 교회에서 모금하여 착실하고 영리한 허양을 도와주었다. 그 교회의 목사로 그녀의 약혼자 재정보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결국 신동문은 유학길에 떠났고, 이때 그는 Minnesota 대학으로부터 Scholarship을 받았다.

그러나 막상 미국에 도착하여 보니 한국전에서 1952-1953 참전했던 친구 Joe Guzenee 열병이 생각났다. 미국땅에 그레도 아는 미국 친구가 있다니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연락했다. 두 사람은 부산에서 처음 만나서 허를 없이 서로 사귀던 친구였다. 당시는 부산 피난 시절이었는데 부모님에게도 인사도 시키고 아우리 전쟁터라고 해도 Joe가 흑사라고 말하지 않은 일은 하지 않도록 충고도 할 정도로 그들의 친

분은 두터웠다. 당연히 미네소타로 가기 전에 그에게 우선 전화를 한 것이었다.

당시 귀국한 Joe Guzenee친구는 그의 가족이 Milano라는 도시에서 가장 큰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었다. 며칠 후 찾아온 신동헌을 반갑게 열싸안고 그를 보더니 "너 왜 그런 추운 Minnesota로 갔어? 그 곳이야 얼마나 추운지 아느냐? 여기에도 좋은 대학, Ohio Northern University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와 같이 Lima에서 살자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유대가 끈끈한 사람이 많다. Lima, Ohio는 시카고에서 기차로 4시간 떨어진 도시이다. 항간에는 Chicago에 있었

을 차별하던 이야기가 새삼 생각난다. 그것은 아주 낡은 사고 방식이었음을 이제는 우리 모두 알 수 있다. 그가 Lima에 머물게 되니 West Virginia에서 공부하던 허영숙 양도 학교를 옮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두 사람은 그해 Lima에서 초출하게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다. 이렇게 신동헌 동문 부부는 두 사람 다 Ohio Northern University에서 Medical Laboratory specialist공부를 하게 된 것이었다.부인이 먼저 그리고 남자가 차례로 4년이라는 대학 학부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이곳에 위치한 두개의 많은 환자들로 번창하는 병원인 Lima Memorial 병원과 St Ritas Medical Center에서 일을 시

고리고 이분들은 의술을 베풀고 또 친목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Medi Lab는 서쪽 북부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의 동부까지 퍼져있는 수 많은 앙로원들, 각 의사들 사무실을 다니면서 번창했다. 새벽부터 환자의 피와 검사물을 운반하면서 정확하고 스피디한 리포트를 보냄으로서 대기업으로 성공한 것이었다. Medi Lab이라는 표시를 한 자동차들이 일대를 바쁘게 다녔다. 이렇게 신동헌 부부는 이 도시에 온 최초의 한국사람으로서 성공적인 그 사업과 그 명성을 얻었다. 또한 이 부부는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감리교회인으로 봉사했다. Suzie Shin으로 알려진 허영숙 박사는 모교인 Ohio Northern University에서 14년간 재단 이사사 또 Lima Symphony Orchestra presidnt로도 봉사했다. 보수적인 이 도시의 미국 사람 사회에서 이웃의 존경을 받았다.그들이 졸업한지 사십여 년이 지난 후 이들은 모교인 Ohio Northern University에서 역사상 유례가 없이 부부가 동시에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한인 이민 사회에 훌륭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무일푼으로 성공사람으로 와서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성공하여 지역사회에 지대한 공을 세웠으며 경제적으로 가난한 환자를 도왔다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부부는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서 또 자랑스러운 한국인(Great Seoul Brother)으로서 두루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이웃 모교를 위하여서도 물심양면으로 공헌을 한 것은 물론이다.

필자 또한 다른 십여 명의 한국에서 오신 의사를 처럼 이 세 분 선배님을 부부가 오랜 전부터 개척해 놓은 도시에 와서 그 힘을 입어 한국사람으로 몇몇하게 30년간 아이들을 기르고 부끄럽지 않도록 의술을 개입하며 지낼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본인은 "서선생"하면서 신박사가 뒤에서 친절히 부르는 것을 느끼며 웃음을 띄우며 뒤돌아본다. 신박사 부부는 은퇴 후 Boca Raton, Florida에서 친필보다 더 좋아하시던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다가 그분이 99세로 며느리를 부르며 돌아가신 후 수년전 부서는 한국 음식점이 많은 Atlanta, Georgia로 옮겨서 여생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아틀란타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에도 가끔 참석한다.

"돈이든 권력이든 이웃의 도움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이어요. 능력이 생겼을 때 주변에 무엇인가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라고 2004년 조선일보 기자에게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신동헌 박사는 미국땅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고 우리나라를 36년간 지배했던 일본사람들이 미워서 그들이 생산한 자동차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평생 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의 특이한 일면이다. 이들의 미국 이름은 Paul Shin, Suzie Shin으로 알려져 있다.

1976년에 그들 부부는 지역사회 은행의 도움과 많은 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고 Private 병리 실험소(Medi Lab)를 창립했다. 한국 의사들 중에는 1960년 초 군의관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온 정형 외과 의사로 이름에 박종식(의대 52년 졸업)님과 이비인후과에 정진욱(57년 졸업)님과 함께 세 분이 삼총사로 한국인의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강은규 (농대 95)

/ 주식이야기(상) /

절대로 지지 않는 게임의 조건

역사상 최악의 대공황으로 기억되는 1929년부터 1932년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무려 85.9%나 폭락을 했다. 그야말로 극한의 공포가 만연한 시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 후 2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5.63%, 30년간의 평균 수익률은 10.94%를 기록했다.

지난 90년의 시간 속에서 누가 어떤 시점에 투자를 시작했든 관계 없이, 설령 어린이가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2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대공황 시대 이후 최악의 20년의 평균 수익률도 5%를 넘었고, 최고의 20년으로 평가되는 1980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18.38%였다. 이쯤 되면 돈을 벌지 못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이다. 그러면 더 이상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현실은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계산 결과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숫자만 보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을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우리의 투자 결과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환상적인 투자 수익률을 보여줬던 기간동안 투자를 했다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계산과 현실이 다를 수 있는 이유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익률이 이렇게 좋은데... 왜 돈이 없지?
고객: 은퇴자금이 50만불정도 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좋을까요?
팀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고객: 증권회사에서 다 관리해줘서 자세한는 몰라요. 하지만... 솔직히 주식으로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좀 겁은 나더러구요.
팀장: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 팔면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장기간 투자를 하면 확실히 돈을 벌 수 있어요. 투자는 선택이 아닙니다. 혹시 지난 25년간 주식 시장 수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시나요?
고객: 아뇨, 잘 몰라요. 2000년 초반하고 2008년쯤에 엄청나게 폭락했었다는건 알고 있어요.
팀장: 그랬었죠. 원래 주식시장은 그렇게 변동이 많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위험이 큰 것이죠. 사실 지난 25년간, 그러니까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이런 폭락이 여러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놀랄게도 그 25년간의 500평균 수익률은 무려 11.13%였어요.
고객: 그래요? 저는 손해나지 않았으면 다행일꺼라고 생각했었는데...그럼 만약 25년 전에 50만불을 투자했다면 25년동안 이자

만 1백만불이 넘는다는 말인가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팀장: 네, 단순히 계산하면 그렇게도 계산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결과를 알게 되시면 정말로 깜짝 놀라실꺼예요.
고객: 얼마나 되는데요?
팀장: 잠시만요... 50만불을 11.13% 수익률로 25년간 투자했으니까...아, 7백만불 정도가 되네요. 계산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연수	수익률	잔액
1	11.13%	555,667
5	11.13%	847,603
15	11.13%	2,435,778
25	11.13%	6,999,753

<단위: \$>

고객: 이게 정말인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나 과거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다는거고...그리고 결과가 이렇게나 좋은데 왜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거죠? 한 할 이유가 없잖아요.
팀장: 진짜 예리하시네요, 고객님. 사람들이 고객님처럼 생각을 하지 않으시니까 속거나 자꾸 무리한 투자를 하는거예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분명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과거 통계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예측해 볼 수는 있어요. 미국 주가지수 500은 역사가 90년이나 돼요.

이 표를 보시면 1928년부터 25년씩 끊어 놓았어요. 1928년-1953년, 1929년-1954년... 이런 식으로요. 그런 후에 각각의 25년의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본 것인데, 이 결과가 참 흥미로워요. 미국 경제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부터의 25년간에 평균 8.09%로 최저 수익률을 보여줬고, 1975년부터 1999년까지의 25년은 평균이 무려 17.86%나 됐어요. 그리고 모든 25년 기간의 수익률들을 평균을 내보니 12.61%나 되더러구요. 지난 90년간 말이에요.

시작	마감	25년간 평균 수익률
1928	1952	9.89%
1929	1953	8.09%
1950	1974	11.67%
1975	1999	17.86%
1993	2017	11.13%

팀장: 미국 대공황이 있었던 1929년부터 1932년 사이에는 단 3년간 주식시장이 85.9%나 폭락을 했었어요. 물론 앞날은 모르는 것이지만, 역사상 최악의 순간을 겪고도 이정도도의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25년이라는 시간은 회복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라

고 볼 수 있죠. 90년 전을 생각할 것도 없이 불과 10년 전에도 50% 가까이 폭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보세요. 1993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익률 평균이 11.13%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정도 수익률이 나오지 않게 되면 경제 전체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어디에 돈을 맡겨도 안심할 수는 없겠죠. 여하튼, 사람들은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망한 사람들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객: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이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은퇴 후에 돈을 얼마씩 쓰면 될까요?

팀장: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던 내용이예요.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두가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첫번째는 매년 실제로 필요한 돈이 어느 정도일지 생각해봐야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쓰고 싶은대로 쓰디까지는 25년은 커녕 10년도 못되서 돈이 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안 쓸 수는 없는 일이었죠. 여하튼 더 돈을 모을 시간은 없으므로, 일단 은퇴 후 돈이 부족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수익률을 9%, 연간 인출액을 8%로 가정하면 원금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수	수익률	인출액(8%)	잔액
1	9.00%	40,000	501,400
10	9.00%	40,000	521,270
20	9.00%	40,000	571,624
25	9.00%	40,000	618,581

<단위: \$>

고객: 50만불에서 4만불씩 쓸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사실 그 정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팀장: 수익률 자체를 보수적으로 잡았으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가 두가지 고려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번째 고려사항은 바로 물가입니다. 누그든 물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례 분석을 할 때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사례에 물가를 고려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는 연 3%로 가정했고, 물가 상승에 따라 매년 인출액을 늘려가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연수	수익률	인출액(8%)	잔액
1	9.00%	40,000	501,400
10	9.00%	52,191	439,977
20	9.00%	70,140	42,108
21	9.00%	42,108	0

<단위: \$>

자, 문제가 생겼죠? 최초 인출액을 수익률보다 낮게 했는데도 20년이 되니 돈이 다 떨어 버렸습니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25년이 지나고도 6억이 남았었는데 말이에요. 3%밖에 안되는 물가가 미약해 보이더라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출액을 조금 더 낮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	수익률	인출액(7%)	잔액
1	9.00%	35,000	506,850
10	9.00%	45,667	532,940
20	9.00%	61,373	387,120
25	9.00%	71,148	159,992

<단위: 만원>

인출액을 1% 낮추니 일단 25년까지는 돈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잔액을 보면 2~3년도 버티기 힘들어 보이네요. 결국 조금 더 여유있게 가려면 인출액은 7%미만으로 하는 것이 안전한 것 같습니다. **고객:**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팀장:** 별 말씀을요. 그럼 다음 미팅에서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더 자세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는 모든 상황을 매우 단순화시킨 사례이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담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투자와 관련된 여러 오해와 진실, 특히 위험 요소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 흔적이 보인다. 예측을 위해 사용할 수익률의 합리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했다. 특히 은퇴 소득을 25년간 매년 똑같이 받는 것처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평가와 상담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은 이 상담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미래를 계획하면 안된다. 이 모든 계산에서 중요한 사실 한가지가 고려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현실에서의 수익률은 늘 변동적이라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25년간 투자해서 9%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98.5%였다. 9%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적은 단 한번밖에 없었다. 심지어 수익률이 10% 이상이 될 확률도 89.4%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25년간의 수익률이 9% 이상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가 계산을 할 때에는 보통 매년 수익률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을 한다. 위에서도 매년 수익률이 9%로 일정하게 계산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수익률 평균이 똑같더라도 매년 수익률이 변동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현직 공인회계사

<다음회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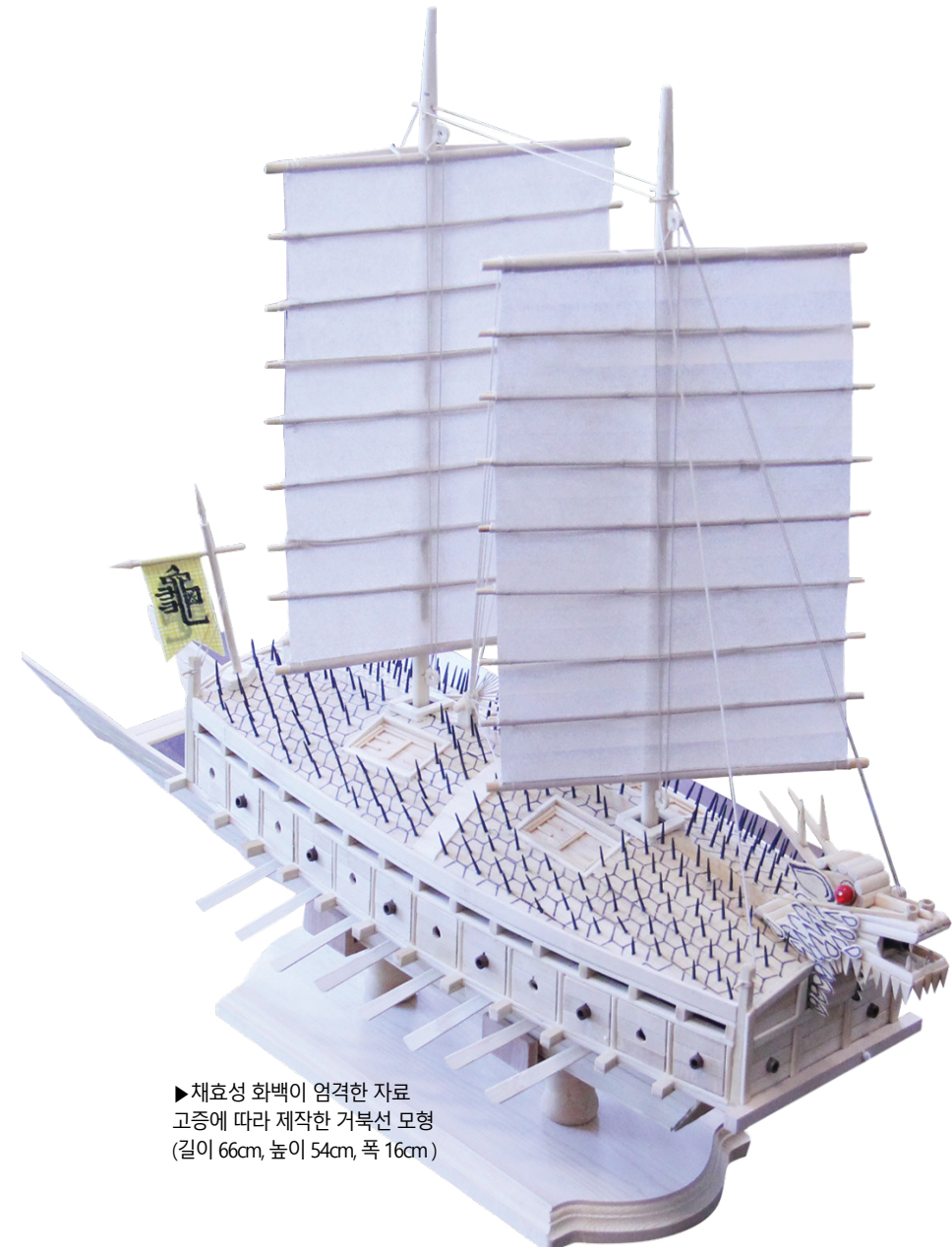
/ 사람, 사람들 /

“이순신은 우리민족의 자긍심이죠”

이내원 (사대 58/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설립자)

거북선 모형 기증차 미주동창회 방문

지난달 20일, 거북선 모형 기증을 위해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먼 거리를 직접 운전해 동창회 사무실을 방문한 이내원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설립자가 신용남 회장과 함께 자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채효성 화백의 거북선 모형을 동창회 사무실에 기증, 동창들에게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 채효성 화백이 엄격한 자료 고증에 따라 제작한 거북선 모형 (길이 66cm, 높이 54cm, 폭 16cm)

이순신 미주교육 본부 설립자·이사장
20여년간 충무공 이순신 알리기 앞장
“이순신은 영웅인 동시에 완벽한 인성모델”
“2세들에 민족의 자긍심 일깨워줄 영웅”



▲지난 20여년간 이순신 알리기 활동에 앞장 서 왔는데 특별히 이순신 숭모인이 된 계기는

- 미국에서 개인사업으로 어느정도 자리를 잡게되면서 생활도 안정되어 갔다. 그러던 중 1997년 김성환 작가의 『임진왜란』 7부작을 읽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이순신 교육이 너무나 부실하고 편향적인데 충격을 받아 이순신을 탐독하기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이순신 교육이 충무공의 업적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

- 책에서는 임진왜란때 일본을 이긴 무장으로만 묘사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순신은 완벽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일본인들조차도 이순신 장군이라 하면 '완벽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순신 같은 전인격적인 인물을 단지 '이기고 지는데만 초점을 맞춘' 무장으로만 묘사했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인물로 조명해나가고 개발시켜 가는데 한국교육이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순신에 대해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 명량해전에서 장군이 격파한 왜선이 난중일기에는 330척인데 다른 총서에는 130척이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궁금종이 더 하면서 자료를 모으게 됐고 결국 130척은

전선을 말하고 나머지 배는 보급 및 수송선을 의미한다는 걸 알았다.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위한 희생과 사랑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장군은 전쟁 중에도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수하에 데리고 다니면서 적과 싸웠다. 난중일기는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순신장군의 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나라를 다스리던 왕보다 더 백성을 걱정하고 위하던 리더였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기적같은 승리의 원인은 절대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이유이다.

▲한인 2세들을 대상으로 이순신 알리기에 적극 활동하시는 이유는

- 차세대 한인들이 세계가 인정할 군함인 거북선을 보며 더욱 당당하게 성장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장군인 이순신을 되새기며 그가 시련에 대처하는 방법, 책임감, 신념 등을 배울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순신 알리기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했던 일들만 알려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순신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용맹하고 지혜로운지 자라나는 2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웅이라 생각했다. 현재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해 전미 한국학교 학생들과 교사,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이순신 미주교육본부

www.yisunsinusa.com

충무공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서울대 사대를 나왔는데 학창시절 이 야기를 해달라

- 원래는 고등학교 교사가 될 생각이었다. 화학을 전공한 덕으로 교직에 가기 전에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시대에 애경산업에 들어가서 화학 기술자로 일을 했다.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미국에 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 선택이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때 교편을 잡지 못한 일에 대해 학생들에 빛을 갠다는 생각으로 현재 이순신 알리기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마음도 있다.

▲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하는 전투와 그 이유는

한국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명량해전'과 '한산도 해전'을 꼽을 수 있겠다. 특별히 한산도 해전은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 발발 후 같은 해 음력 7월 8일(양력 8월 14일)에 있었던 이순신 연승행진의 여덟 번째의 해전이다. 앞서 있었던 옥포해전으로 시작되는 사천, 당포, 당항포, 울포 등 7개 해전이 포구마다 분산 배치된 일본 수군을 수색·토벌하는 탐색전이었다면 한산도 해전은 조선과 일본의 최정예 함대가 남해의 제해권을 걸고 대결한 일대 결전이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침략의 원흉 도요토미는 이순신을 격파하지 않고는 조선 침공계획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그래서 바로 한 달전 조선의 충청, 경상의 근방병 5만을 몰살시킨 무장 왜키자카 야스하루에게 남해로 내려가 이순신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자신만만했던 왜키자카는 최정예 73척 만을 이끌고 단독 출전하여 한산도 앞바다에서 이순신을 맞는다. 여기서 이순신은 그 유명한 학익진법, 즉 적을 유인하여 학이 날개로 먹이를 감싸며 머리를 쏘아 대는 듯한 포위 작전을 벌여 적선 73척 중 59척을 격파하고 일본 수군 6천여 명을 수장해 버렸다. 기세가 등등하던 왜키자카는 허겁지겁 인근 무인도에 올라 보름 동안 해초만 뜯어먹고 연명하다 뱃목을 만들어 육지로 탈출한다.

지금도 일본의 그 후손들은 이 조상의 고난을 기념하여 1년에 하루 해초만 먹는 날로 지킨다고 전해진다. 이후 도요토미는 '이제부터 이순신을 만나

거든 싸우지 말고 해안으로 피하라'는 피전 명령을 내렸으며 물자보급을 받지 못해 불안해진 평양의 고니시 유키나가 등 일본의 육군 장수들은 전의를 상실해 남해안으로 퇴각하는 전기가 되었다.

후일의 역사가들은 이순신의 이 한산대첩으로 도요토미의 조선정벌과 대륙진출 계획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써 조선뿐만 아니라 허약한 명나라까지 지켜주어 동양3국의 역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한다.

▲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중 가장 좋아하는 명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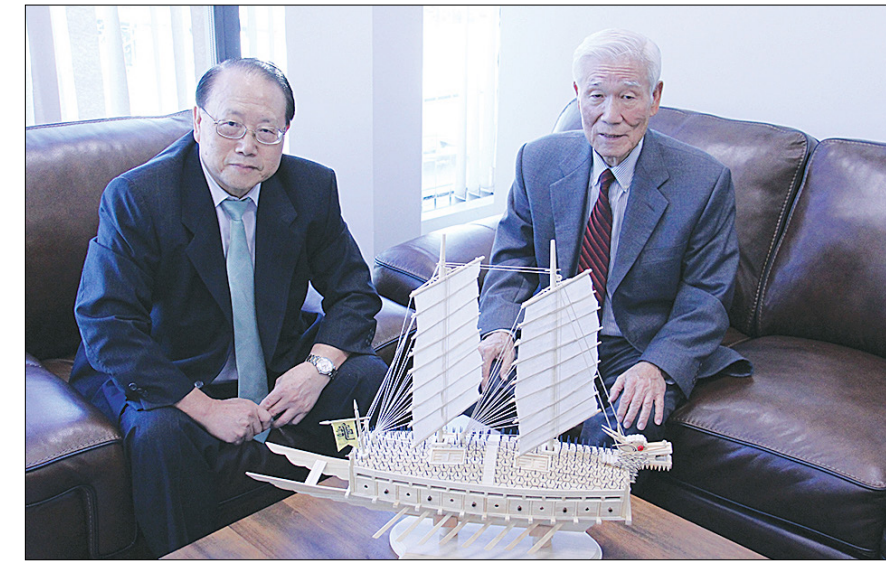
- 이순신은 내가 아는 가장 효성이 깊은 사람이다. 난중일기의 첫 장 첫 날부터 시작하여 이순신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100여회나 반복 되는데 이중 노당(老堂-늙으신 어머니), 병친(病親-병든 어머니), 견(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 등 몇번을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천지(天只)라는 아주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다. 이말은 중국의 고전 사서삼경중 시경 용풍의 시에 나오는 모야천지 불양인지(毋也天只 不諫人只-어머니를 곧 하늘이시거늘 어찌해 내마음 모르시는가)라는 구절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공의 지극한 효심과 아울러 해박한 학문적 깊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전세계 '충무공 글쓰기 운동' 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 현재 협회에서는 전세계 '충무공 글쓰기' 운동과 한글·영어·불어·스페인어·독어·일본어·중국어 등 7개 국어로 구축된 www.yisunsinworld.com 세계 교육사이트의 번역 등 다양한 이순신 세계 교육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에 부딪혀 후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충무공의 드높은 구국헌신의 정신을 숭모하시는 많은 동문들이 함께 이순신 세계교육에 생기를 실어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 특별히 서울대 동창들과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지식의 실용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지식인들이 공익정신을 가지고 동포사회를 위해 일해줄지 바란다. 특히 미국은 정치력 신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하는 미국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지성인들이 나와주길 기대한다.



직접 기증한 거북선 앞에서 신용남 미주 동창회장장과 함께



2017년 이순신 미주교육본부가 개최한 충무공 탄신 472주년 기념 이순신 문학상 공모전 시상식.



2017년 한국 순천향대 이순신연구소에서 개최한 '제19회 이순신 국제학술세미나'에서.

■ 이내원 동문 PROFILE

2001년, 신문기고 라디오 대담 한민학교 강연 등으로 '이순신 바로 알리기'에 나섰다. 2000~2001년에는 서울대학교 워싱턴 지역 총 동창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 한민학교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공로로 교육 부총리의 표창을 받았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부 이사장 겸 역사 문화교재 편찬위원장, 워싱턴 지역 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한미 장

학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2008년 10월 해외 민족 교육 유공자로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2009년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 전국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14개 지역 산재한 800여 한국학교의 5만 재학생을 위한 동포자조 재정개선운동을 주창 선도하기도 했다. 2011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육공로 표창을 받았다. 2008년 대통령 교육공로자 표창, 2011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교육공로 표창을 받았다.



이회백 (의대 55)

미국 판문점, APPOMATTOX

/ 숨겨진 역사이야기(상) /

1865년 3월4일
제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날 그의 두번째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영문 그대로 옮긴다. "With malice toward none ; with charity for all."

1865년 3월 28일
General Grant의 Floating Commanding Post인 Union Steamer, River Queen에서 링컨 대통령은 Lt. General Ulysses S. Grant, Maj. General William Tecumseh Sherman, 그리고 Rear Admiral David D. Porter와 만난자리에서 "반군이 무기를 놓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는 그들을 다시 미국 시민으로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1861년에 링컨을 처음으로 만나본 Sherman은 그를 연약하고 당파적이고 대통령 노릇을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정치인 이라고 평가했었다. 그런데 두번째로 그를 만나본 후로는 "그는 내가 만난 중 훌륭한 사람이 갖추어야할 모든 요소와 인간성을 가장 많이 갖춘 사람이었다"고 평가가 달라졌다.

미주리 주 하원의원을 지낸 James Symington은 말하기를 "링컨은 양쪽을 다 보는 통찰력을 가졌기에 그는 남북전쟁(미국에서는 Civil War라고 하나 우리에게 익숙한 남북전쟁이라고 나는 부르겠다)중 중추적인 역할을 할수 있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지내야함을 항상 명심했든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1865년 4월 9일
이틀전에 General Grant로 부터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말고 항복할것을 권하는 편지를 받은 General Lee는 이를 거부하고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길을 찾았으나 그 길이 없음을 분명해지자 Grant에게 항복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의는 하자고 편지를 보냈다. 이때 Grant는 심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받자마자 두통이 사라졌다. 그는 아무 감정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부하에게 크게 읽으라고 했다. 그는 즉시 Lee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를 읽어본 Lee는 예상치 못한 회답에 놀랐다. 회담장소를 패한 자기에게 정하라는것이다. 그는 즉시 적당한 회담장소를 물색하라고 부하에게 명령했다.

그때 그가 포위당한 장소는 당시 Confederate수도였던 Virginia 주 Richmond의 남쪽에 위치한 Petersburg와 그 서쪽에 위치한 Lynchburg 사이에 있는 Appomattox Court House 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스무 개 정도의 집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처음에 고려한 집은 너무 허술해 다시 물색한 결과 Wilmer McLean 이란 사람의 집(사진 참조)이 선택되었다.

마지막에 승낙한 이집 주인, Wilmer Mc-

Lean 이란 사람은 원래 남북전쟁 첫번째 전투지였던 Manassas근처에 살던 사람인데 전쟁 한복판을 피해 한적한 곳에서 살고 이곳으로 이사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Manassas 집은 남북전쟁의 첫 신호탄이 된 Fort Sumter 포격시 그곳 사령관이었던 Brigadier General P.G.T. Beauregard가 Manassas전투(Union측에선 First Bull Run이라 부르다)때 본부로 쓴 집이었다. 따라서 Wilmer McLean 의 두집은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끝마치는 기구한 운명의 집이 됐고 지금 Appomattox에 있는 집은 Appomattox Court House National Historical Park



▲남군의 항복을 위하여 만난 Grant(왼쪽)와 Lee. ▶회담장소

가 생기면서 2008년에 재건한 집(사진 참조)이다. 나도 한번 가서 구경하고 싶은 그런 집이다.

General Lee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쑥한 새 군복을 입고 조각문의가 새겨진 칼을 옆에 차고 있었다. 그는 포로가 될것으로 예상하고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차림을 적에게 허술하게 보일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정장한것이다. 30분 후에 나타난 General Grant의 차림은 이와 대조적으로 작전지역에서 입든 옷 그대로 달려와서 구겨진 옷에 진흙이 얼룩져 있었다. 아무 무기도 소지하지 않은 그는 어چه에 달린 퇴색된 계급장만이 간신히 그가 장군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옷을 갈아입을 사이가 없어 무례하게 됐노라고 사과했다. 한쪽은 패한 장군, 한쪽은 승전한 장군임에도 표정은 똑 같이 슬픔에 잠겨 있었다. Grant가 먼저 자기가 Mexico전쟁때 그를 본 기억이 있음을 이야기했다. Lee는 "그랬든가?"하면서 자기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노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적 이야기가 오고가다가 Lee가 먼저 사무적인 논제를 끄집어 냈다.

항복조건으로 무엇을 자기에게 요구하는가 하고 물었다. 첫째 장병 전원의 명단을 두벌 작성, 하나는 자기편에,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보관할것을 요구했다. 둘째, 다시는 연방정부에게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선서를 하라고 했다. 셋째 모든 무기와 장비는 지정된 장소에 옮기고 우리가 임명한 장교에게 바치라고 했다. 그러나 장교의 개인용 무기와 말, 그리고 개인 휴대물은 이에 포함치 않는다고 했다. 이를 이행한 후면 언제 귀가해도 (되고 이 요구조건을 지키고 지나가는 지방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아무도 연방정부의 방해받



지 않고 집에 갈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General Lee가 예상했던 조건보다 훨씬 관대한것이었다. 아무도 포로로 가두거나 반란죄로 기소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또 이제는 우리는 어차피 소용없고 당신들 사병들은 돌아가면 다가오는 봄경작에 필요할테니 말도 가져가라고 했다. 그리고 Grant는 Lee에게 지금 휘하에 몇명이 있으며 병사들이 굶주리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Lee는 지금 몇명이나 남아있는지는 자세히 모르나 굶주리고 있는것은 알고 있노라고 했다. Grant가 2만 5천명분 ration을 보내겠다고 하자 Lee는 그것은 자기 사병들을 매우 즐겁게 해줄것이며 앞으로 남북이 화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회담내용을 기록하고 내용을 피차 확인하고 나니 오후 네시가 됐다. 항복문서에 서명을 마친 Lee가 회담장소에서 나와 말에 올라 자기 진지로 향하자 들

러췄든 북부군들이 환호성을 올렸다. Grant는 이를 즉각 중지 시키고 "그들은 이제 우리들의 포로다. 그들의 패배를 우리가 즐길 때가 아니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은 다시 우리 국민이 되었다." 고 말했다. 그다음날 정식 조인식을 갖고 사열식을 갖게 되었다. 북부 Joshua L. Chamberlain 장군이 이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는 Gettysburg, Petersburg 전투에서 여섯군데나 다쳐 그가 살아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런 심한 상처를 입었는데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장군이다. 남부군 John B. Gordon 장군이 그의 앞을 지나가고 그의 뒤를 따라 Northern Virginia Army의 유명한 Stonewall Brigade가 지나가자 Chamberlain은 패해서 가는 그들을 향해 경례를 하라고 자기 군병에게 명령했다. 이에 답례해 Gordon은 말을둘러 Chamberlain을 향해 그의 칼끝을 그의 발끝에 갖다대면서 답례를 했다.

후에 General Gordon은 General Chamberlain을 최고의 기사도를 갖춘 장군이라고 극찬했다. Lee는 항복당시 Grant가 배운 관용을 평생 잊지않았고 자기 앞에서 Grant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는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처음엔 90일이면 끝날것으로 예상했던 남북전쟁은 4년이 걸리고 62만명의 인명피해를 낸후 Appomattox에서 "사실상" 끝났다. 이 숫자는 미국이 치른 독립전쟁, 1812년의 영국과의 전쟁, 멕시코전쟁, 스페인 전쟁, 1,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을 합친 숫자보다 많은 숫자다. 그 당시 미국인구가 3천1백만이었으니 지금으로 치면 6백20만의 인명이 희생된 참혹한 전쟁이었다. (최근에는 75만명으로 수정이 되었다)

Lee가 지휘하는 Northern Virginia Army가 항복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다른 군대도 차례로 항복했다. 그중 가장큰 군대는 North Carolina에서 General Sherman과 대적하고 있던 Joseph E. Johnston이 지휘하는 군대였는데 그도 4월 24일에 항복했다. General Sherman은 초토화 전술을 쓴 현대전의 최초장군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의 전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이란 잔인한거다.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전쟁은일찍 끝난다." 그의 초토화 전술이 효과를 나타내 끝없이 계속될것 같은 전쟁은 급속히 진전되고 그결과 링컨조차 질것으로 예상했던 대통령선거는 그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링컨이 재선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미국은 거의 틀림없이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쪼개졌을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전술을 썼든 Sherman 도 Johnston이 항복하자 Grant에 지지않은 관용을 베풀었다. <다음회에 계속>



최용환 (공대 57)

/ 한민족의 얼(4) /

세계를 움직인 동아시아의 과학과 발명

인류가 바닷길 따라 동쪽으로 이주하다가 한반도에 이르러 처음으로 사계절과 겨울을 맞아 봄, 여름, 가을에 농사지어 겨울을 준비하였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농사짓기는 인류문명의 시작이었다. 농경생활을 시작하면서 저수지를 만들어 물을 모았다. 흙 그릇을 불에 구워 토기를 만들고 칼, 낫, 채, 맷돌을 만들었다. 물레를 돌려 방아를 찌는 물레방아를 만들고 실타래를 돌려 옷감 짜는 가락바퀴를 만들었다. 땅에 구르는 바퀴를 만들어 짐을 나르는 손수레를 만들었다. 사람을 태워 나르는 인력거를 만들고 소가 끌여가는 달구지를 만들었다. 쟁기를 만들어 밭과 논을 가꾸었다. 대나무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했고, 물에 빠지지 않는 짚배를 만들어 멀리 항해를 했다. 짚배를 크게 지으면 가족이 살림을 하며 풍향과 조류를 따라 원양항해로 섬나라에 이르렀다. 짚배는 한반도의 초가집처럼 농경생활에서 시작되어 온 세계에 분포되어 동남아시아와 남미의 페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황토벽에 굴을 파서 동굴 집을 지었다. 부엌 불길에 방바닥을 데우는 온돌방을 만들었다. 김치, 된장, 고추장, 술, 등의 겨울 음식을 독에 담아 땅에 묻고 저장하였다. 석탄불에서 쇠불이 칼과 연장을 만들어 나무와 돌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나무집과 돌집을 짓기 시작하고 가구와 살림을 차려 처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모습을 찾았다. 마을을 보호하는 담을 쌓고 마을 입구에 동서남북 문을 세웠다. 마을이 성장하여 궁성을 짓고 성곽과 물길을 둘러 왕성의 모습이 처음 나타났다. 쇠축과 쇠바퀴를 이어 붙여 말이 끌여가는 거마(車馬 chariot-사진 2)를 만들어 사냥과 전쟁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바퀴 굴러다니는 격자형 도시계획을 시작하여 사찰, 궁성, 도시의 모습이 격자형으로 발달하였다.

만주지역 발해의 상경부(上京府), 한반도 고구려의 장안(長安 평양), 신라의 왕경(王京 경주), 일본의 평성경(平城京 나라)과 평안경(平安京 교토) 등의 도시와 미국 원주민의 고대 도시 팔렝게와 테오티후아칸의 도시계획으로 동아시아 도시들의 공통성이 세계로 분포되었다. BC 3000~BC 1500년에 변형한 인더스 문명의 모헨조다로(Mohen-jodaro) 유적의 도시계획도 같은 모형이며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이 동아시아 인의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하늘을 우러라 조상의 혼과 자연을 관리하는 신의 신비를 느끼고 그 원리를 배우려 일찍부터 천문학이 발달하였다. 음과 양(周易; I-Ching: Book of Transformations)의 균형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나라 태극기에 태극의 모양을 등극게 그렸다. 전방후원의 석굴암 평면처럼 원형은 신의 영역이고

방형은 사람의 영역으로 이해하였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장터가 나타나고 장날을 맞아 시장에 나가면 물건과 물건을 거래하다가 농사짓는 마을에서 처음으로 돈이 사용되었기에 산업이 발달하였다. 동전의 등근 모습은 신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그 안에 사각 구멍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고리를 끼기에 우주 안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아시아의 철학원리를 동전의 모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속표면에 해가 반짝이고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서 동그란 청동 거울은 신이 머문 곳으로 여겨졌다. 청동 동경은 집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는 보물이 되었다.

석탄불에서 시작된 금속문화는 일찍부터 동아시아 문화의 종교, 철학, 과학이었기에 다섯 손가락으로 오행을 세는 때에 이미 존재하였다. 음양오행은 인류의 종교에서 과학이 시작되었다. 동서남북이 있고 가장자리에 사람이 있어 오행을 이루었다. 동쪽에는 물과 청룡, 남쪽에는 불과 주작, 서쪽에는 나무와 백호, 북쪽에는 쇠바치와 현무로 사람과 환경을 상징적으로 정의하여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의 공간형성과 벽화에서 선명하게 보여준다. 음양오행은 해 달 물 불 나무 금속 흙의 일곱 요소로 시간과 공간을 형성한 목숨을 지탱하는 환경으로 여겨졌다. 여기서 시작된 일곱 숫자는 복두철성의 숫자로 성스러운 숫자로 여겨져서 세계의 모든 종교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안악 제3호 분(사진 고분 단면도)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과학의 모습을 보여주는 훌륭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만주 들판에 야생말을 길러 말이 수레를 끌게 되고 거마를 만들게 된 우리 선조는 나무 배를 만들어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였다. 10만년 전에 떠난 해빙길 따라 현대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를 찾아가게 된다. 나무무 배를 타고 거마를 몰아 거침없이 아프리카 나일강에 나라를 세웠음은 우리 선조의 발



길이었다. 전차를 달러 사냥하고 아랍인들과 흑인 원주민들을 정벌하여 노예로 부리는 그림과 조각물의 예들을 볼 수 있다. (사진1 파라오가 흑인과 아랍인을 정복하는 모습)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피라미드를 건조한 왕과 귀족들 중에 동아시아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장 큰 피라미드의 주인 쿠푸(고부)가 작은 체구에 동아시아인의 인상이다. 그와 함께 일한 건축가 임호텝 역시 얼굴에 광대뼈가 높은 동아시아인의 모습이며 그들의 후손들이 혼혈아의 특색인 아름다운 모습이며 동아시아에서 명명하던 4자 이름들이 많다. 우리나라 고구려에 연개소문, 을지문덕처럼 북미대륙에 원주민들의 이름과 같은 현상이다. 아프리카 귀족들이 사용한 가구들 중에 옥돌, 상아, 목재칠기등의 모양은 동아시아 제품들과 유사하다.

한반도의 농사짓는 고인돌 마을이 만주요하지역에 이주해 들어가 개와 말의 집에서 기르고 말을 타고 개를 몰아 사냥을 시작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일찍부터 손칼을 사용하여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옥돌을 다듬기 시작하였다. 몽골지역 수천 곳에 바위그림과 문양의 유적이 있고 옥돌조각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셀 수 없는 옥돌 유물(사진3 상나라 옥돌 얼굴과 마야의 얼굴)로 세계 여러 하문명에서 처음 나타나고 고조선, 훈족, 고구려로 이어지며 하나라 상나라로 이어져서 동아시아의 상징 동물이 되었다. 말 안장에 가죽 발기리를 사용하다가 금속제품을 사용하였다. 말이 이끄는 거마(chariot)는 소가 이끄는 나무바퀴 달구지에서 청동바퀴축이 고속도의 회전을 감당하면서 마차에 구비되는 여러가지 철재도구들과 함께

동아시아에 군사장비에 사용되었다가 페르시아에 알려지고 지중해에 전해졌다.

신석기 시대 고인돌 마을부터 동아시아의 한의학의 여러가지 방법이 발달해왔다. 음양(陰陽)학설은 동아시아 사상의 기본되는 자연철학(自然哲學)이다. 우주 속에서 우주의 변화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인체의 활동도 소우주(小宇宙)라고 부른다. 자연철학에 따르는 한의학(韓醫學)은 우

리 선조들의 지혜에 의해 발전되었다. 인체 기관의 활동과 작용을 음양의 균형으로 관리한다. 음과 양으로 분류하여 하늘과 땅, 해와 달, 바다와 육지, 낮과 밤, 남자와 여자,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 물과 불, 밝음과 어둠 등이다. 몸 안의 생리적인 면에서 물질(理)과 에너지(氣)는 상호제약과 협조 작용이며 이를 통해서 음양의 평형이 유지되어 "음양의 소장(陰陽消長)"이라고 부른다. 침술이 발달하고 한국의 의학은 세계의 최고 의학으로 자리를 잡았다.

산봉우리나 성루에서 검은 연기, 흰 연기 그리고 다른 색들의 연기를 올려 신호를 하였으며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손자법법은 현대강국들의 군사활동을 교과서가 되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발명과 무기들은 훈족이나 몽골들이 세계침략에 나섰을 때에 짧은 기간에 거침없이 세계를 정복하는 능력이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의 발명과 기술은 16세기 이후에 나침판과 해양기술, 인쇄 기술, 의학기술, 방직기술들과 함께 유럽에 전해졌기에 유럽이 주도하는 세계현대역사가 비로소 시작하였다.

동아시아의 발명은 인류문명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생활개선, 질병예방, 정신과 신체의 균형, 수학과 과학, 종이, 옷감, 북과 종, 배의 키, 해시계와 물시계, 물건너는 다리 건설, 땅속 깊이 물 소금 금속을 찾아내는 기술, 지진 측정기, 나침판과 항해술 및 지도 만들기, 종이돈, 인쇄술, 연 만들어 띄우기, 꽃꽂놀이, 차 술 곡수 음식 만들기, 등의 많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발명을 해 왔기에 1271년에 원나라를 방문한 마르코폴로는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선진 문명이었다고 그의 동방견문록에 기록했다.



김형도(공대 58)

/ 한국 근대사 이야기 / 공하면 통한다

인천 자유공원을 찾아 맥아더 장군의 동상에 참배하고 내려오는 길에 고구마를 파는 가게 앞을 지났다. 김이 무력무력 나...

보부장 김종필을 찾아가다. "국민들을 배굴리지 말자"는 전 사장의 호소에, 김종필 부장은 마침 농림부가 가지고 있던 10만...

이 사장은 한 라인에 6만 달러라던 라면 제조시설을 두 라인에 2만5천 달러로 즉석에서 발주해주었다.

면과 수프의 배합에 관한 일화도 극적이다. 전 사장은 일본에서 라면제조업의 전 공정을 배웠지만, 기술자들은 끝까지 면과 수프의 배합 비율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어렵던 시절의 허기진 배를 채워줬던 '제2의 쌀' 라면은 인스턴트 식품이란 이유로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졌다.

한국전쟁 직후를 회고해보면, 당시 끼니도 이어가기 어려워 많은 사람들이 하루 세끼 중 한 끼는 고구마로 때웠다. 적어도 라면이 나올 때까지는 그랬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배고플까 봐 궁여지책으로 고구마를 삶아주셨는데 처음에는 파삭파삭한 고구마가 입맛을 당겼다. 그런데 하도 많이 먹다보니 질려서 냄새도 맡기 싫었다.

그런데 세상은 돌고 돌며 변하기도 한다. 한 때 천시 받던 고구마는 몸에 좋은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값이 좋아서 재배가 늘고 있다. 식단에서 멀어져 가던 라면도 육류에 질린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내게도 집사람이 멀리 출타하면 비상식량 1호가 라면이다. 그리고 일부 좌파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줬었던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려는 등 난동을 부려 우방의 빈축을 사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장거리 미사일 쏘아 올리는 등 그 위험이 날로 증가하자, 우리의 은인 맥아더 사령관이 더 우르르 보이고, 장군의 동상을 찾는 사람들이 날로 늘고 가고 있다.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인천자유공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하면서, 한국 전쟁에서 낙동강까지 밀렸던 연합군이 극적인 전기를 마련한 인천상륙작전 기념일 9월 15일을 회상해본다. 전쟁 직후 우리 국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줬던 라면이 태어난 9월 15일을 떠올려본다. 자연식품이요, 기초식품인 고구마를 되새겨본다.

이들 셋은 '공하면 통한다'는 위기 극복에의 전기를 마련해준 힘이었고, 용기였고, 지혜였다. 감사드린다. 라면에게, 고구마에게, 맥아더 장군에게.



1960년대 첫 삼양라면 광고

1963년 9월15일은 라면이 탄생한 '역사적인 날' 전쟁 후 꿀꿀이 죽으로 연명하던 서민을 위해 전중윤 사장, 일본기술 도입 '삼양치킨라면' 첫 선



▲삼양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삼양치킨라면' ▶60년대 고구마로 한끼를 대신하고 있는 가족.



날, 오쿠이사장은 실장을 시켜 공항에서 봉투 하나를 전 사장에게 전해주었다.

비행기에서 뜯어보라는 그 봉투 안에는 기술자들이 펄펄 뛰며 비밀로 했던 면과 수프의 배합비율이 적혀 있었다. 가난하고 굶주리던 국민들의 배를 채워줬던 라면은 이렇게 눈물겨운 사연을 안고 1963년 9월 15일 '삼양치킨라면'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다. 당시 가격이 10원. 식당에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가 30원이고 커피 한 잔이 35원이던 시절이니 저렴한 가격이었음이 분명하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먹어봤고 저마다 추억이 있을 라면이다. 정확히 인스턴트 라면은 1963년9월15일 태어났는데, 그 일화는 가슴을 뜨겁게 한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아 한국인들 모두 힘들게 살아가던 1961년 어느 날, 삼양식품(주) 전중윤 사장은 남대문시장을 지나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한 그릇에 5원 하는 꿀꿀이죽을 사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을 보았다.

풍요의 시대를 살아온 요즘의 젊은 세대는 꿀꿀이죽을 모른다. 귀동냥으로 여러 가지 남은 음식을 죽처럼 끓여낸, 빈곤시대의 상징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 전 사장은 저 사람들에게 싸고 배부른 음식을 먹게 할 방법은 없을까? 고민 끝에 그는 일본에서 라면제조시설을 들여오려고 구상을 한다. 하지만 외화가 없고 국고가 단절됐던 때라 그 시설을 들여오기는 하늘의 별을 따기만큼 어려웠다. 정부가 가진 달러를 민간이 원화로 사던 시절, 한 라인에 6만 달러인 라면제조시설을 수입하기엔 전 사장도 돈이 부족하고, 가난한 정부도 웅색하긴 마찬가지였다.

'공하면 통한다'고 전 사장은 당시 중앙정

Advertisement for Bermuda Cruise featuring a large cruise ship, text '제29차 평의원회의 배유다 크루즈', 'BERMUDA CRUISE', and '에메랄드 빛 물길 가르며 피어 오르는 소통, 화합, 비전'. Includes a table for the itinerary and pricing details.

Table with 3 columns: Day, Location, and Depart time. Days 1-5: Thu New York City, Cruising / 세미나, King's Wharf / Arrive 8:00 AM, Cruising / 세미나, New York City. Depart 4:00 PM.

선착순 50명 \$200 지원. 각 지부 평의원미션 동문님께서는 선착순 50분께 미주동창회에서 200달러 지원됩니다.

- 인사이드 \$9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오션뷰 \$1,099 (Tax + 항만세 포함) 1인
발코니 \$1,349 (Tax + 항만세 포함) 1인

참여 문의: 맥독자 818-395-1967, 동창회 718-463-3131

- ◆예약때 필요한것: 여권 정보 영문 성함, 생년월일, 여권 번호, 여권 발급일, 만기일 (신청서 참조)
◆크루즈타일때 필요한것: 시민권자: 여권 영주권자, 여권 영주권 한국에서 오신분들: 여권 ESTA 사본, 전자항공권 사본
*항공료 및 공항에서 승선까지 비용은 별도입니다. *Group 이라 최종 결정을 신중히 하시고 취소가 안됨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조화유 ‘Naked She Came ...’



조화유 (문리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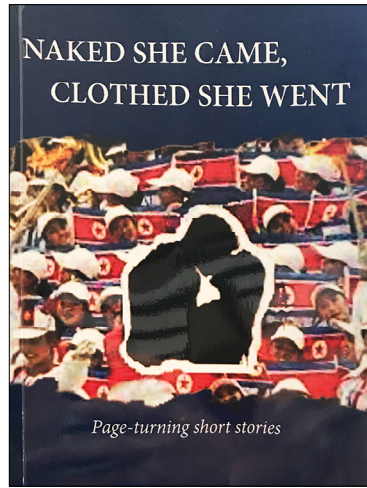
영어 저술가인 조화유 동문이 영어로 된 단편 소설집(표지 사진)을 펴냈다.

1970년 대한일보 신춘문에 소설 당선자이기도 한 조화유 동문은 ‘조화유 생활영어’를 통해 미국과 한국 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틈틈이 소설 창작도 계속해 이번에 3번째 작품집을 발간했다.

저자는 “책 제목으로 붙인 ‘Naked she came, clothed she went’를 굳이 한국어로 옮긴다면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 입어 입고가는 인생’ 정도가 될 것”이라며 그의 어머니의 생애를 소재로 한 소설이라고 전했다.

이 책에는 그와 함께 응원단으로 내려온 북한 여성과 한국 기자의 사랑이야기를 다룬 ‘다대포에서 일어난 일’을 비롯해 남파 간첩 이야기인 ‘암살’, 사형제의 존재 문제를 다룬 한 ‘죄와 벌’ 등이 실려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저자가 영어 저술 활동 틈틈이 발표했던 작품 중에서 일부를 골라 영역한 것으로 미국 독자들에게 한국 소설을 소개하면서, 그의 생활영어 책을 통해 공부한 독자들이 그동안 공부한 영어실력을 스스로 테스트 해 볼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펴냈다고 전했다. 현재 조 동문은 버지니아 주의 리스버그에서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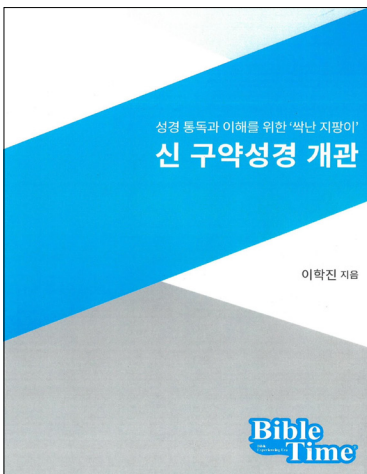
이학진 저서 '신구약성경 개론'



이학진 (농대 71)

이학진(농대 71) 동문이 ‘신구약성경 개론’을 간행하였다 2012년에 이 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이해와 통독을 위한 썩난 지팡이’가 출간

되었고 그 책을 중심으로 신문과 방송 그리고 교회들에서 성도님들과 성경통독과 이해라는 주제로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실질적으로 17-18주에 걸쳐서 성경을 한번 통독하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먼저 이해하고 통독하려는 요구가 많아져서 이번에 8시간짜리 성경통독을 위한 신구약 개론서를 쓰게 된 것이다. 그리고 ‘The Bible Times’에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의 목사님들을 교육시키는 기초적인 교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스페인어로도 번역하여 선교를 위해 준비 중이다.



‘썩난 지팡이’가 출간되고 지난 6년간 모두 10권의 성경신학에 관한 책을 저술하였다. 이 동문은 “이번에 출간한 책은, 성경을 어려워 하는 일반 성도들을 위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통독할 수 있을까 하는 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 책은 그의 10번째 저서인데, 그는 미주 크리스찬 신학을 위해 준비 중이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 책 이야기 /

느와르 영화, 그리고 나의 장편소설 ‘절규’



이영목(공대 59)

느와르는 검은 색을 말한다. 느와르 영화는 오늘날에 와서 탐정, 범죄 다시 말해서 하드보일드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시작은 그래도 사회 비판적인 시선에서 시작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는 1920 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대에 시작되어 프랑스를 거쳐 홍콩의 하드보일드 영화 작품으로 옮겨 갔다.

그리고 내가 문학 그리고 영화 세계에 매몰되었을 때가 프랑스가 느와르 영화의 절정기였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그중 몇 개의 영화는 아직도 나의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분위기가 좀 재미있게, 축축한 매력보다는 다소 성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쓰려 노력 했다.

나의 소설 ‘절규’는 분해하자면 4편의 단편소설이라고 할 만큼 각 편이 하나 하나 독립적인 이야기와 그리고 에필로그로 되었다.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서 열등감의 하류층 사나이 역을 한 미남배우 알랭 드롱의 싸늘한 증오의 눈빛 그리고 살인, 영화 ‘공포의 보수’에서 알제리 하렘 가에서 떠돌던 배우 이브 몽땅이 외진 유전에서 불이 나고, 아무도 갈 엄두도 못내는 그 험난한 길에 술집여자를 위하여 폭풍을 일으키어 불을 끄는 용도의 TNT를 싣고 목숨을 거는 트럭 운전에서 나고, 그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오던 길에 트럭 번복으로 죽어가면서 손에 거머쥔 호텔 열쇠와 그의 일그러진 얼굴 표정, 영화 ‘현금에 손대지 마라’에서 현금 탈취 후 동료의 배보짓으로 바람에 날아 가는 현금을 허탈하게 바라보던 무표정의 명배우 잔 카방, 지금 다시 그 영화 장면들을 회상만 해도 가슴이 쫄다.

내가 장편 소설 ‘절규’를 탈고 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저 그런 이야기의 소설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곳곳이 취미 같은 기분으로 쓰는 문학인들의 글에는 더 더욱 관심이 없다. 또한 장편 소설하면 읽을 엄두도 안내고 그저 소설의 줄거리만 읽으려고만 한다. 그것이 소설분야의 현실이다.

그렇게 문학 특히 소설을 쓰는 세계는 척박한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는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리고 읽고 싶었다. 그래서 자극적이라고 할까 하드보일드라고 할까 문학의 사생아처럼 취급을 받았던 검은색의 문학 느와르가 불현듯 새삼 생각이 났다. 그래서 이번 탈고를 한 나의 소설도 그러한 취향의 글이다.

다만 현대 독자의 요구에 맞게 무거운

1편 진혼곡은 천당포를 경영하던 남자 주인공과 흑인 마약 조직의 딸의 사랑 이야기이다.
2편 상여소리는 부산 남포동 일대에 밀수조직의 딸과 가출한 소년의 풋사랑으로부터 전개되는 파란 만장의 모험이다
3편 엘레지는 장기간 숨어 있던 유전자의 돌연 출현으로 이국적인 모습의 여인으로 태어나 바람을 피다가 태어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집안에서 버림받은 그래서 형극의 삶을 산 모녀의 이야기이다
4편 내 몸매가 어때요는 아칸소 한 닭공장에서 한 천동발거수기의 한 여자와 한 젊은 청년이 헤어져 여자는 누드 맨서로 남자는 러시아 마피아로 전락 굴곡의 삶을 살다가 우여곡절 끝에 어주인공이 남자와 헤어지고 차분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다
5편 에필로그는 1~4 편의 주인공들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크루즈 배에서 우연하게 만나서 엮어지는 이야기로 대단원을 끝내고 있다.

나의 이 장편 소설은 매들리 같이 단편 소설의 묶음으로 시도한 소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장편 소설에 분야에서 순수문학이라며 내 놓는 작품과 달리 현 문학 시장에 새로운 장르의 상품으로 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나의 이러한 상품이라는 표현은 이제 문학 작품을 작품이 아니라 감히 상품이라고 부르는 작금의 시대이고 그런 시대나 스스로 곤혹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기에 그렇게 표현했다. 하지만 나는 온전히 나의 이러한 시도가 상품이자 작품으로서 독자와의 대화가 성공적이기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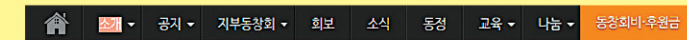
동창회비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 snuaa.org —

서울대미주동창회 웹사이트에서 회비납부 및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후원방법

1.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웹사이트 snuaa.org에 접속하여 “동창회비 후원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 페이지에서 노란색 **Donate** 버튼을 눌러서 **PayPal 후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동창회비 및 후원금을 보시는 방법

Option 1. 온라인 납부 (동창회비)

Donate

- 위의 "Donate"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웹사이트 (PayPal)로 이동합니다.
- 결제 웹사이트에서 \$75, \$150, \$200 버튼 또는 원하는 후원금 액수를 입력합니다.
- 신용 카드로 결제하려면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를 눌러주세요.

3. 서울대 로고가 있는 PayPal 화면이 나오면 가) 동창회비 또는 후원금 액수를 선택한다. \$75, \$150, \$200 중에서 선택하거나 직접 후원 액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Write a note"란에 이름, 출신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내역을 적습니다. (사진 위)

나) Credit 또는 debit 카드의 내용을 기입하고, billing address 를 적습니다. 동창회가 내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을 표시합니다.

다) 맨 아래에 전화 번호와,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그리고 "Donate Now"를 누르면 후원이 됩니다.

Donate with a debit or credit card

United States

Card number

Expires

Security code

First name

Last name

Billing address

Street address

Apt., suite, bldg. (optional)

City

State

ZIP code

Contact Information

Mobile

Phone number

Email

Save this information for next time.

View PayPal policies and your payment method rights.

Donate Now

Cancel and retur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4. 그 다음 후원액수가 잘 보내졌다고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5. 몇 초 후에 후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4. You've donated \$ US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USA

5. 감사드립니다

수표를 미주동창회 사무실로 보내는 방법

- 후원하는 수표를 보내실 때 별도의 종이 동문님의 성함, 출신단과대, 입학년도, 전화 번호, 기부금 항목을 적어주시고.
- 수표의 수취인 (payable to)은 SNUAA-USA 입니다.
- 동창회 사무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UL-2, Flushing, NY 11358

후원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18-463-3131 또는 이메일 finance@snuua.org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리: 이창길(자연 85) 사무총장



김원호 (약대 63)

/ 문화이야기 / 추억의 영화들

여행이란 떠나기 전의 설레임과 도착지에로의 상상이 현지에 도착해서 보다 훨씬 좋다. 다음 주에는 3년간의 병치레를 끝내고 처음으로 tour group을 따라서 Mt. Rushmore에 다녀오기로 하였다. 그동안 내가 걷는 뒷 모습과 집안 층계 오르내리는 것을 훑쳐 보던 아내가 합격 판정을 내렸기에 55년전 대학 입시 합격때 만큼이나 기뻐다.

즉시 Nathaniel Hawthorne의 단편 The Great Stone Face를 꺼내 다시 읽으니 주인공 Ernest는 어느덧 노인이 되어 revere-end wrinkle진 얼굴로 버려진 주황색 황혼의 빛이 내려 비추이는 큰 바위 얼굴을 쳐다 보고 있었다. 나는 DVD Collection 캐비닛에 가서 'North by Northwest'를 다시 꺼내 보면서 Hitchcock 감독의 얼굴이 어느 장면에 extra로 2초동안 등장하는지를 살폈다. 나는 미남 배우 Cary Grant보다 '해저 2만리', '스타 탄생', '사막의 여우', '버디트(Verdict)' 등에서 본 성격 배우 James Mason을 더 좋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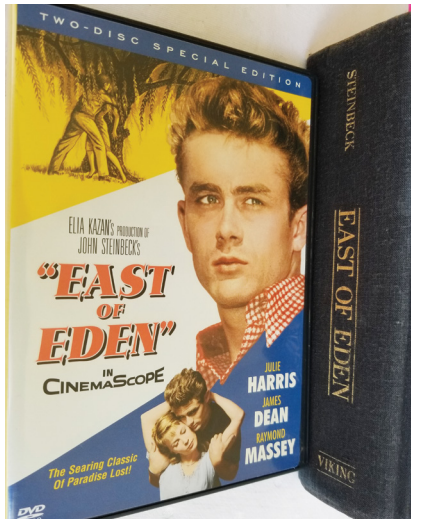
감독 Alfred Hitchcock의 IQ는 그 누구도 따라 갈수 없었으리라. 인터넷을 찾아 보니 South Dakota주에서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대통령 얼굴 바위에서의 추격전 로케이션을 허락하지 않아서 헐리웃에 거대한 바위 얼굴 셋트를 설치하고 영화제작을 완료하였다고 하니 그의 프로젝트 경영 수완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물론 '십계'를 제작감독한 Cecil B. Demille이나 '벤허'를 감독한 William Wyler와 같이 당대에 기라성 같은 영화인들도 있긴 하였지만...

나는 어려서 부터 영화를 매우 좋아해서 요새도 이곳 Hollywood에서의 기이한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고 있다. 별반 오락 시설이나 레저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5-60년대의 소년기에 본 영화들이 나도 모르게 미국 문명에 깊숙히 빠져들게 하리라고는 성인이 되어서도 감지를 못하고 노년에 접어들었다. 이곳 Fullerton의 어느 한인운영 카페 뒷마당 텍에서 잔느 모로의 사진을 발견하고 가슴 두근거리며 예전에 나 혼자만이 영화보러 다닌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실소한 적도 있다.

지난 동창회보에서 송윤정님의 '누구를 위하여...' 제목을 읽었 보고서 Ernest Hemingway, Gary Cooper, 특히 Ingrid Bergman의 짧은 머리카락을 생각하며 읽었다니 마지막에 가서 John Donne의 시귀절이 나왔다. 언젠인가 나도 이 시귀절 '좋은 그대를 위하여 올리는 것이나'를 읽은 기억이 나는 것을 떠올리며 약학과에서는 1학년때 분석화학에 노출시키는데 영문과에서 17세기 영시를 읽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헤밍웨이는 생전에 자기 작품을 영화화한 것들에 관하여 전혀 만족을 못한다고 하였다. '무기여 안녕', '해는 다시 떠 오른다', '누구를 위하여...' , '가진자와 못 가진자', '킬리만자로의 눈', '노인과 바다'등이 모두 영화화되어 우리들에게 잔잔한 아니면 대단한 감동을 준 기억이 난다.

1984년 부터 남가주에 살면서 매년 봄 북가주 Monterey 시에서 열리는 내분비 학회에 올라갔다. 이곳은 마카로니 서부영화



영화 'East of Eden' 커버와 책

로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던 Clint Eastwood가 시장을 역임하던 때로 Carmel by the Sea는 Pebble Beach Golf Course와 Big Sur를 비롯하여 서부해안 경치의 절경을 이루는 곳중의 하나이다. 이곳의 한 책방에서 산책 중에 'East of Eden'의 첫 걸장 안에 1988년이라고 적혀있으니 삼십년 동안 함께 이사한 단년 셈이다. 지금도 그 타령이지만 그때만 해도 영어가 익숙치 않기도 하거나 전공분야 전문 저널만 읽을래도 시간이 무척 걸렸고, 화학에서 의학분야로 새로 들어와 읽고 이해하며 따라 가야하는 논문들에 치어서 문학분야 책들은 그대로 꽂혀 있지 않았나 싶다. 그 대신 영화로 된 것들을 보면 두시간 만에 문학관련 책의 내용은 알게 되어서 좋긴 하지만 역시 소설에서 그리는 묘사를 영화가 따라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소위 은퇴라는 것을 하고 연금에 기대어 살다 보니 금전적으로는 부족해도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많아져서 소설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Steinbeck의 'The Grapes of Wrath', 'Cannery Raw', 'Zapata' 등은 년전 읽었지만 (아침 식사를 Coffee와 Biscuit으로 하면 든든하다는 것을 '분노의 포도'를 보고 배웠다) 팔백 쪽 가까이 되는 '에덴의 동쪽'은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 달 끝내었다. James Dean이 나오는 이 영화는 소설의 반도 커버를 하지 못하니 헤밍

웨이의 실망에 이해가 닿기도 하였다.

반면 영화는 대개 두 시간에 끝내야 하니 시나리오 작가가 소설의 내용을 가감 삭제하여 각색하는 능력을 또한 재능이라고 아니 할 수없겠다. 따라서 영화는 영화대로 나름대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 영화의 감독은 Elia Kazan으로 David Lean, Stanley Kubrick, Alfred Hitchcock 등과 함께 나의 우상이었다. 영화 '에덴의 동쪽'외에도 그의 작품으로 'On the Wa-



영화 'North by Northwest' 커버

terfront', 'Street Car Named Desire', 'Splendor in the Grass', 'Viva Zapata' 등은 우리를 종교고 시절의 주옥같은 명화들이었다.

영화에서 Caleb으로 분하는 제임스 딘은 내가 중학교 시절 서울에서 보았던 '이유없는 반항'과 '자이언트'에서 처럼 젊음의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의식의 상징으로 우리세대의 우상이었다. 이영화 'Rebel without a Cause'를 로케하였던 Griffith Park의 천문대에와 나의 집 바로 밑의 자동차 치킨게임의 해안 절벽 그리고 Catalina 섬을 내려다 보면 서울 시청 앞 광장 건너편 골목에 있던 경남극장과 함께 뇌리에 겹치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와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지 회심의 미소를 짓게도 한다. 이곳 Palos Verdes는 경관이 좋고 공기가 맑아서 좋는데 바다 안개가 자주 올라와 무릎관절이 성할 날이 없어 많은 노인들이 dry area인 Palm Springs로 옮겨 간다고도 한다.

스타인 백의 소설에서는 Caleb과 그의 모친을 '악의 상징'으로 그리고 그의 이란성 쌍둥이 Arron과 부친을 '산'의 모델로 하여 17세 주인공 Caleb의 순수하게 세상을 받아들이면서도 이윤배반적인 세상 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의 고뇌와 분노와 분출이 읽는 이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

게 하는 섬세한 필치로 엮여진다. 영화에서는 시간상 이유로 절미되어 등장하지 않는 중국인 집사 Lee가 사실상 이 소설의 주인공이 아닌가 싶다. (소설의 배경인 1910년대 중국인들이 노예로 미국에 팔려 와 중노동에 시달렸으며, 그당시 Scientific American과 National Geographic의 잡지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 내가 1959년 조선일보 뒷골목에서 Sears Roebuck 메일오더 카타로그를 보고 놀랐던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또 놀랬다.)

중국 유교의 '선'에 대한 사상과 서구 기독교에서의 '악의 회개 개념을 탈무드에서의 '선택'이란 가르침을 취하여 저자는 우리 인간이 선과 악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태어날 수있는 privilege가 있다고 설파하는데 이것을 모두 2시간에 커버한다는 것이 무리란 생각이 든다.

Lee는 아래와 같이 설파한다. 자기는 결코 신을 믿지 않는다고. The King James of the American Standard 번역을 보면 'Do thou'라고 하여 하느님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한다(Obedience). 왜냐하면 우리의 기존 문명은 신을 따를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predestination). 그러나 사실의 삶에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벗어나라고 주문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간다. 'Thou shalt'는 인간이 나약하지만 죄의식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것이라고 깨우쳐 준다. 탈무드에 나오는 히브르 용어중에 Timshell (선택, choice given)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약함과 죄의식에서 벗어나 '선'을 택 할수있는 경향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미물인 벌들은 꿀을 만드는 것만이 그들의 운명이고, 고양이는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이란 영광스러움을 갖고 살아 간다. 즉, That makes a man a man인 것이다. 악에 부딪치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공격당하고 유인되지만 절대로 파괴 되지는 않는다. 즉, Human Soul이란 가장 성스럽고 우주공간에서 제일 특별한 존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Thou myest'이기 때문이다 (= the great choice given).

이와 같이 집사 Lee를 등장시켜 Caleb의 위선적인 부친에게 진정한 선과 용서가 무엇인가를 서술하는 것을 영화에서는 event 중심으로 관객 동원의 차원에서 흥미 위주로 거두절미하여 영화를 만든다는 점도 충분히 알수 있었다.

헤밍웨이가 인용하였던 시의 일부를 옮겨 본다.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d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10월 후원자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애드워드 (사대 60)	김동석 (음대 64)	김영순 (음대 59)	김원탁 (공대 65)	김일훈 (의대 51)
박양세 (약대 48)	박원준 (공대 53)	백 순 (법대 58)	신동국 (수의대 76)	양승문 (공대 65)
오동환 (의대 65)	윤상래 (수의대 62)	이상원 (62)	이서구 (문리 61)	이재량 (상대 61)
이창신 (법대 57)	이재진 (문리 85)	정재훈 (공대 64)	주기목 (수의대 68)	차수만 (약대 71)
최용완 (공대 57)	한재은 (의대 59)			

종신 이사비 (\$3,000 이상 / 85명)						
(G) 골드 이사 오인석 (법대 58) 윤상래 (수의 62) ●●●●●● 남가주 강신용 (사대 73) 김경숙 (간호 68) 김동훈 (의대 71) 김재영 (농대 62) 노명호 (공대 61) 노재성 (법대 58) 박명근 (상대 63) 박윤수 (문리 48) 박중수 (수의 58) 방명진 (공대 73) 서동영 (사대 60) 서영석 (의대 55) 서치원 (공대 69) 심상은 (상대 54) 심화섭 (약대 61) 오재민 (치대 33) 오홍조 (치대 56) 이병준 (상대 55) ●●●●●●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용남 (농대 70)	이세열 (사대 57) 이종도 (공대 66) 이기광 (상대 61) 이홍표 (의대 58)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희택 (의대 60) 제영혜 (가정 71) 조용원 (문리 66)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귀희 (미대 68) * 한홍택 (공대 60) 한효동 (공대 58) ●●●●●● 북가주 김정희 (음대 56) 손석보 (공대 68) ●●●●●● 뉴욕 김광호 (문리 62) 신용남 (농대 70)	오인석 (법대 58) (G) 윤정옥 (약대 50) 이기영 (농대 70) 이진구 (농대 60) 이재덕 (법대 60) 이준형 (공대 48) ●●●●●● 뉴잉글랜드 고일석 (보건 69) 김문소 (수의 61) 박경민 (의대 53) 박영철 (농대 64) 오세경 (약대 61) 윤상래 (수의 62) (G) 윤선홍 (치대 64) 정선주 (간호 68) 정정옥 (의대 60) 정태영 (문리 71) 홍지복 (간호 70)	권기현 (사대 53) 류재풍 (법대 60) 민홍기 (문리 61) 방은호 (약대 43) 오인환 (문리 63) ●●●●●● 워싱턴주 이희백 (의대 55) ●●●●●● 시카고 남상용 (공대 52) 이용락 (공대 48) 정 태 (의대 57) 한재은 (의대 59)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남세현 (공대 67) 조형준 (문리 62) ●●●●●●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 중부텍사스 이광연 (공대 60) ●●●●●● 조지아 주종광 (약대 60) 허지영 (문리 66)	●●●●●●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 하트랜드 김경숙 (가정 70) 김명자 (문리 62) 이교락 (의대 53) 이상강 (의대 70) ●●●●●● 휴스턴 박태우 (공대 64) 조시호 (문리 59)	●●●●●● - 종신이사 (고인) ●●●●●● [카네기 음악회 순수익금] (6/22/19) \$6,637.55

✂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19. 7 ~ 2020. 6) <input type="checkbox"/> \$150 (2019.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3,000 (종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19. 7 ~ 2020. 6) <input type="checkbox"/> \$480 (2019. 7 ~ 2021.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문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문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 _____ .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문민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2019년 7월 1일 이후, 동창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보내실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payable to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 Fax: 718-463-6789 / news@snuua.org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후원금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Table with columns for donation categories (전회장단 이월금, 업소록 광고비, 일반후원금, 특별후원금, 카네기음악회 후원금) and lists of donors with their respective amounts.

<바로 잡음>지번호 26면의 카네기 음악회 후원금에서 착오로 명기된 뉴욕지역골든클럽 후원금 \$1,000을 \$2,000으로 정정하며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동창회비 (1차 회기: 2019. 7. 1 ~ 2020. 6. 30)

* 표: 2차 회기까지 내신 분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9-2020 period, categorized by region (남가주, 중서부, 북가주, 뉴욕, 시카고, 샌디에고, 하트랜드, 휴스턴, 오레곤, 미네소타, 뉴욕, 플로리다, 아리조나, 텍사스, 미시건,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뉴저지,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다코타, 뉴햄프셔, 메인, 뉴잉글랜드).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dues for the 2019-2020 period, categorized by region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아리조나, 뉴멕시코, 뉴잉글랜드, 뉴저지, 뉴멕시코, 콜로라도, 와이오밍, 몬태나, 다코타, 뉴햄프셔, 메인, 뉴잉글랜드).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공인회계사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oess, CA 90630
www.taycoeng.com

Leedco Engineers, Inc.
이종도 (공대 66)
T: 626-448-7870 / F: 626-448-3955
leedco@aol.com
3870 Baldwin Ave., El Monte, CA 91731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17607 Sherman Way, #204, Van Nuys, CA 91406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d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광고주를 모십니다.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 877-764-1405
520 S. Virgil Ave., #103,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약국
CareMax Pharmacy
유창호 (약대 74)
C: 909-229-7777
California Korean-American Pharmacists Asso.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나성 약국
임낙균 (약대 64)
T: 213-387-3030
3030 W. Olympic Blvd., #118, LA, CA 90006
의료 / 치과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t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p.
조임현 (간호대 72)
T: 213-487-3253 / im.cho@axa-advisors.com
3435 Wilshire Blvd. Suite 2500, LA, CA 90010
Mirae Asset Wealth Mgmt. (USA) Inc.
최경석 (사대 80)
D: 213-262-3805 / M: 213-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A, CA 90010
kyungsuk.choi@miraeassetusa.com
기타
한국트로피 / 한국타올사
박양중 (문리대 61)
T: 213-380-2775
3475 W. 8th St., #100, LA, CA 90005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rdino, CA 92404
북가주 CA
정보 / 서비스
두리하나 결혼 정보
정지선 (상대 58)
T: 510-224-0760 / 1durihana@gmail.com
13766 Aurora Dr., San Leandro, CA 94577
www.2makes1.com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이혁엽 알라지 전문의
이혁엽 (의대 73)
T: 201-568-3800 / 718-321-7366
385 Sylvan Ave., E.C., NJ 07632
144-24 37th Ave., Room #LD, Flushing, NY 11354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운송 / 원자재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T: 718-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워싱턴 DC MD·VA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의료 / 치과
이준영 치과
이준영 (치대 74)
T: 301-220-2828 / 301-926-9692
6201 Greenbelt Rd. 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 Shady Grove Ct., Gaithersburg, MD 20877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104, Rockville, MD 20850
www.facl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 광고주를 모십니다 /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아래의 주소로 동창회비를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동.창.회.비

온라인 납부 방법

우측의 QR code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종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용남 (농)
고문: 박중수 (수), 주중광 (약)

자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이창길 (자연) 대리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이창길 (자연)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특별 사업국장: 허유선 (가정)

회보 발행인: 신용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만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한경수 (문), 주재욱 (의), 최철용 (농), 연봉원 (문)
최한용 (농), 송용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허유선 (가), 이창길 (자), 문현호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허유선 (NY),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홍 (법), 연봉원 (문), 이재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묵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조화연 (음)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중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고문 박중수 (수)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용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 (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한귀희 (미대 68)	805-300-7977 khahn@4apec.com	Feb-Jan
	차기회장	민일기 (약대 69)	562-547-2110 davidmin920@gmail.com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곽준경 (법대 75)	650-656-7683 joon.kwa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이강원 (공대 66)	401-369-1565 kwaynelee@gmail.com	Jul-Jun
	차기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북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텍사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송세진 (치대 78)	612-930-7360 sejinso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신옥인 (농대 87)	619-726-7820 wookin.shin@cbpnt.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병윤 (문리 65)	847-951-3297 jacobkimby@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장윤일 (공대 60)	630-305-8792 ychang@anl.gov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정병희 (공대 71)	301-661-9227 paulchung5@gmail.com	Jul-Jun
	차기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25-9390 sangkeunpark@gmail.com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류성렬 (공대 72)	425-786-4766 sungyul04@comcast.net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설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주지영 (문리 66)	706-338-4520 jane.chu.ga@gmail.com	Jan-Dec
	차기회장	공영식 (사대 79)	770-880-5816 youngskong@yahoo.com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조정현 (수의 58)	856-685-9762 jcac461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정치영 (법대 76)	305-665-1961 cychyung@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지원식 (공대 85)	919-913-5570 wschee@gmail.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석공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동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권오을 (상대 56)	y.kwon@griffith.edu.au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 투자를 통해 성장한 기업, 미래에셋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 미래에셋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다양한 투자 기회를 경험하세요.

Services offered **Wealth Management and Investment Banking**

최경석(사대 80)

상담 및 문의 (213) 262-3800
(213) 952-9911

3701 Wilshire Blvd., Suite 101, Los Angeles, CA90010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is a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This message is solely for informational purposes. Advisory services are only offered to clients or prospective clients where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and its representatives are properly licensed or exempt from licensure. Past performance is no guarantee of future returns. Investing involves risk and possible loss of principal capital. No advice may be rendered by Mirae Asset Wealth Management (USA) Inc. unless a client service agreement is in place. Member FINRA, SIPC.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since 1999

듀오 USA



결혼해 듀오

www.duouusa.net

213-383-2525(LA)

201-242-0505(NY)



시니어 여러분

메디칼 그룹

선택하셨나요?

2만명 이상 시니어분들이 가입한
 서울 메디칼 그룹은
 크고 탄탄한 메디칼 그룹으로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합니다.



배우 이순재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 하세요, 시니어 화이팅!



Dr. 차민영 M.D.
 (의대 76)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